

아주대학교의료원 소식 10

2012

통권 제213호 / 발행일: 2012. 10. 1. / 발행인 겸 편집인: 蘇義永 / 발행처: 아주대학교의료원 홍보팀 / (443-721)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전화: 1688-6114

· 목 차 ·

- 2 포커스
개원 18주년 기념식 및
웰빙센터 준공식
- 3 선인재 컬럼
그 선생에 그 제자
- 4 나의 연구 나의 테마
얼굴에서 치아까지
턱 얼굴의 기능적 재건
- 6 풍경과 그 안의 사람들
대를 이어 심장 돌보는
「또 하나의 가족」
- 8 책과 감염병 22
이름을 남기지 않는 사람들
- 10 의학리포트
종합적인 나노 독성 원리 규명해
- 11 특집
전문센터, 아주대학교병원의 중심
(Center)에 서다
- 26 협력병원탐방
이음병원
- 27 아의 선생 75편
사경치료를클리닉
- 28 건강Q&A
근육 떨림
- 29 AMC News
- 34 의료원 발전 후원명세
- 36 외래 진료 시간표
- 39 전문 클리닉 진료 시간표

두 개의 변화, 하나의 길



올해 아주대학교병원에는 두 개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특화된 웰센터가 첫 변화고, 질병 중심, 센터 체제로 전환하는 본관 리노베이션이 두 번째 변화입니다.

첫 변화에서 아주대학교병원은 건강한 사람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두 번째 변화에서 아주대학교병원은 아픈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변화의 모습은 다르지만, 두 개의 변화가 만나는 길은 같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아픈 사람도 모두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

이 길을 찾기 위해 아주대학교병원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주대학교병원이 만들어가는 건강한 길 위에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개원 18주년 기념식 및 웰빙센터 준공식

아주대학교의료원은 지난 9월 12일 오후 5시 별관 대강당에서 개원 1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소의영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임기영 의과대학장, 박지원 간호대학장, 유희석 병원장을 비롯하여 교직원 500여 명이 참석하여 개원 18주년을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아주대학교의료원은 20년, 10년 근속상과 의료원 발전에 공헌한 교직원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 올해 공로상 총장상에는 시설관리팀 배명환, 의료원장상에는 간호부 소지은 외 3명, 의과대학장상에는 교학팀 우경은, 간호대학장상에는 간호부 송충숙, 병원장상에는 홍보팀 오은영 외 26명이 선정됐다. 또한 단체부문에서는 고객상담실, 외래간호팀, 병원 경영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기념사에서 소의영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다소 촉박하게 느껴졌던 웰빙센터 개소 목표일에 맞춰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일사분란하게 추진하고 계획대로 달성해 내는 모습을 보며, 역시 사람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하며, 『남은 2012년 하반기에는 연구중심 병원과 권역별 중증외상센터 유치를 이뤄내 아주대학교의료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하는 계기로 삼자』고 당부했다.

개원 기념식에 이어 9월 18일 오후 3시에는 별관 대강당에서 학교법인 대우학원 이영현 상임이사, 아주대학교 안재환 총장, 아주대학교병원 홍보대사인 석해균 선장을 비롯한 3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웰빙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웰빙센터는 연면적 26,012㎡에 지상 8층 지하 3층 규모로, 2010년 2월부터 2년 6개월간 공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8월 6일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다.

웰빙센터는 기존에 병원이 가지고 있던 질병치료 기능에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의 기능을 접목한 신개념의 힐링(healing) 공간을 지향하며 설계된 만큼 다른 병원에서 볼 수 없는 암 환자 쉼터(아주푸른공간)와 아주스포츠의학센터 등을 만날 수 있다.

이날 소의영 의료원장은 인사말에서 『웰빙센터 준공으로 고객에게 좀 더 쾌적한 진료환경을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 이를 계기로 아주대학교병원 진료공간이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진료과에서 질환 중심으로 바뀌는 등 발전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고, 웰빙센터 준공의 의미에 대해 『아주대학교의료원의 역량확대와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개원 18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전달하고 있는 소의영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 웰빙센터 준공식에서 내외빈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그 선생에 그 제자

어느 만화 제목처럼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은 요즘 들어 여기저기서 알미운 짓을 골라서 하고 다닌다. 필자가 노인간호학을 전공하기에 일본인 학자들과 잦은 소통을 하는 입장에서 표정관리하기 참 어려운 때가 바로 요즘이다. 하필 이런 와중에 동경에서 열리는 학회에서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일정이 잡혔는데 좀처럼 마음이 내키질 않아 발표원고 준비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문득 아버님께서 책장에 고이 모아두셨던 유품이 떠올라 부랴부랴 발표할 슬라이드를 완성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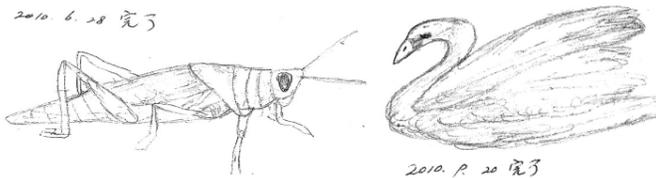
일정시대에 당시 20대 후반이셨던 일본인 선생님이 아버님이 다니시던 황해도 연백에 소재한 보통학교 교사로 부임하셨는데, 가방이 없어 보자기에 책 보따리를 싸서 어깨에 메고 다니던 보통학교 학생들 눈에 일본인 담임선생님은 무엇이든 신식으로 생활하시던 멋진 분이셨다고 늘 회고하셨다. 아버님께서 보통학교를 졸업하시기 전 그 선생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니 한국에 머문 시간은 불과 3~4년 남짓했던 것 같다. 언제부터인가 그 선생님께서 연말연시 즈음이 되면 당신이 손수 치장하여 만드신 엽서를 해마다 어김없이 아버님께 보내주셨고 2001년도 엽서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엽서는 오지 않았다. 그리고는 2002년도 가을쯤엔 그 선생님의 따님께서 당신 아버님께서 연초에 92세 일기로 별세하셨음을 알리는 편지글과 아버님께 전하라고 남겨 놓으신 비망록을 보내왔다.

미친한 일본어 실력으로 엽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면 그렇게 높으신 연세에도 불구하고 글씨가 비뚤어질까봐 얇고 맑은 종이에 보일 듯 말 듯 가느다란 줄을 먼저 그어놓으신 위에 쓰인 글씨는 흔들림 없이 가지런하고, 새해를 맞이하여 개인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세계적 차원에서 소

망하시는 선생님의 기원을 담으셨던 엽서 묶음을 주인 없는 책장 안에 언제까지나 잠재워두는 것이 아까운 생각이 들어 이번 학회에서 이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몇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하나는 일본인 선생님과 한국인 제자가 잔잔하게 사제사랑을 끊임없이 나누었던 에피소드를 귀감으로 지금 일본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웃나라끼리 아웅다웅하는 것은 일본인의 모습이 아니고 친밀하게 교류하며 지내자라는 제안이었고, 다른 하나는 수명이 다할 때까지 국제적으로 네트워킹하면서 인지기능과 운동기능을 명료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일본인 선생님의 건강수명 가꾸기 전략의 근거를 찾아보자는 제안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는 멋진 일본인 선생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평생 실천하셨던 한국인 제자를 칭찬해주시라는 메시지였다.

필자의 아버님은 말년에 파킨슨 질병으로 오른손을 몹시 떨어 당신 스스로 식사하시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정밀묘사를 시작해서 7~8권이나 되는 스케치 북을 완성하시고 이틀을 병석에 누워계시다 2010년 9월 23일에 작고하셨다. 몹시 손이 떨려 글씨 한 줄 써 내려가시기 어려운 것으로 모든 형제들이 생각했으나 왼손으로 떨리는 오른손을 잡고 한 컷 한 컷 그림을 완성하시면서 돌아가시기 3일전까지 작품 활동을 하셨던 아버님은 스승께서 하셨던 그대로 당신의 여생을 스스로 돌보며 사셨다. 그리고 아버님 역시 당신의 선생님처럼 글씨가 비뚤어질까, 새 종이도 아까워서서 광고지 뒷면에 가느다란 줄을 일정하게 그어놓고 모든 글자가 인쇄물처럼 가지런히 당신의 유서를 남기고 가셨다. 「그 선생에 그 제자」라고 하는 말처럼...



송미숙 교수 / 간호학연구소장



얼굴에서 치아까지 턱 얼굴의 기능적 재건

사람의 턱이 가지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저작, 다시 말해 음식을 씹는 기능일 것이다. 위턱과 아래턱이 만나는 부위가 턱 관절이며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아래 턱의 운동에 의해 턱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치아가 음식을 잘게 부수게 되고 이를 식도로 넘기면 위를 비롯한 몸 속의 장기에서 이를 소화하게 된다. 결국 턱과 치아는 인간이 생존에 필요한 음식을 섭취하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능을 한다고 말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이 턱과 치아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밖에 없으며 둘 중 어느 하나라도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대부분의 치과 의사가 주로 치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고전적인 역할을 한다면 나와 같은 구강악안면외과의사는 턱과 치아의 기능을 회복시켜 정상적이고 효율적인 저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좀 더 광범위한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치과학의 한 분야로서 조금 길고 어려운 이름인 구강악안면외과의사는 명칭에는 치아와 턱, 그리고 얼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심미적이고 조화로운 얼굴 형태의 회복과 정상적인 저작기능의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많은 구강악안면외과의사가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치과대학을 졸업한 지 14년이 되던 작년 여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UCLA(캘리포니아 주립대)로 해외연수를 떠났다. 연수생활을 한 UCLA 치과대학 구강악안면외과는 미국 서부에서 가장 많고 다양한 종류의 턱 얼굴 기형 및 기능 부조화를 가진 환자들의 치료 성적을 자랑하는 곳이다. 나는 그 곳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구강악안면외과의들과 다양한 증례들을 함께 토의하고 그들의 경험과 한국에서의 나의 경험을 서로 공유할 수 있었으며 인종간의 차이에 따른 치료계획과 그 결과의 차이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턱 교정 수술의 미국의 최고 권위자인 Dr. Arnett의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턱 교정 수술의 다양한 경험과 이론, 그리고 임상 노하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보낸 시간은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동양인에게 많이 나타나는 주걱턱의 경우는 미국보다 한국에 증례가 더 많다는 것을 알고 동양인에서 많이 나타나는 턱 얼굴 기형에 대해서는 나의 경험과 임상성적에 대해 그들에게 강의할 기회가 주어진 것도 값진 경험이었으며 지속적인 전공의의 파견과 공동연구의 진행과 같은 교육과 연구의 성과도 있었다. 처음에 걱정했던 언어의 차이는 서로 같은 일을 한다는 공통점으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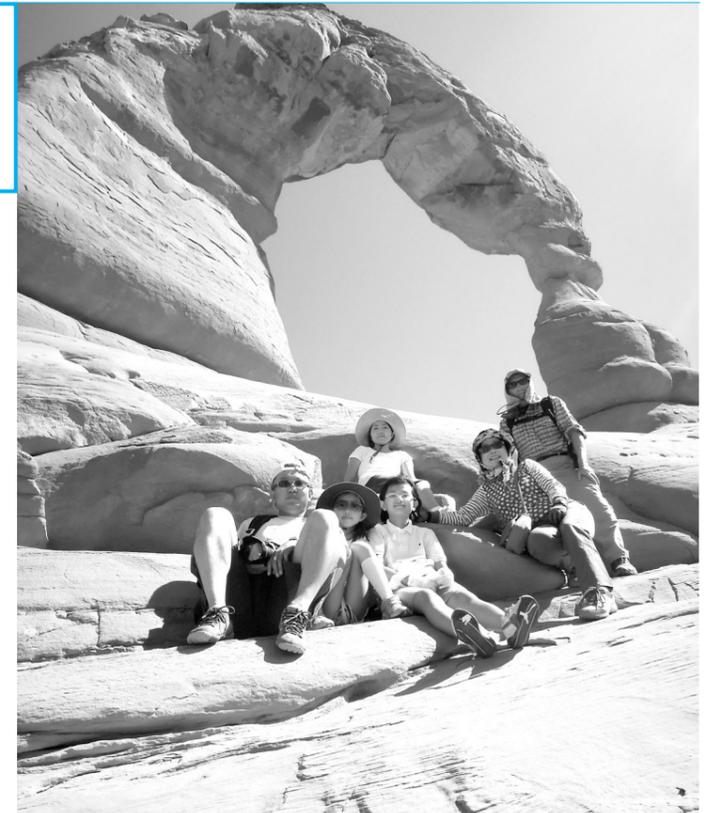
내가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는 환자들이 주로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병원을 찾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나의 연구주제는 자연스럽게 턱과 치아의 기능을 회복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우선 턱의 형태나 위치 이상으로 위아래 턱이 잘 맞물리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턱 교정 수술을 하게 되며 이는 정상적인 저작 기능의 회복이라는 관점과 조화로운 얼굴을 회복하는 심미적 관점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치료계획이 중요하데 여러 가지 치료방법과 수술방법 중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재발성향을 줄이는 안정적인 치료법을 확립해나가는 것이 첫 번째 연구주제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연구주제는 턱의 운동을 회복하는 것인데, 흔히 턱관절 장애라 불리는 일종의 기능이상으로 입이 잘 벌어지지 않거나

관절잡음이 들리며 통증으로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턱 운동과 저작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다. 다른 관절과 다르게 회전운동뿐 아니라 다른 복잡한 운동을 수행하는 턱 관절은 아직 매우 만족스러운 치료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전에는 관절원판이 빠지는 것과 같은 구조적 이상을 해결하기 위한 치료를 주로 한 것에 반하여 요즘은 정상적인 운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의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관절의 염증을 일으켜 기능이상으로 유도하는 원인물질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이를 차단하는 약제나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이 나의 또 다른 관심사라 할 수 있다.

마지막 연구주제는 치아의 기능회복이다. 치아가 없어지면 임플란트라는 재료를 사용하여 형태와 기능을 많이 회복하고 있는데 불행히도 치아상실과 함께 진행되는 턱뼈의 흡수가 이를 어렵게 한다. 골이식의 방법을 통해 턱뼈의 형태를 재건하고 여기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음식을 저작하는 치아의 기능을 회복시키게 된다. 여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게 되는데 적당한 골 이식재와 함께 골유착 기간은 줄이고 성공률은 높일 수 있는 임플란트를 개발하는 것이 나의 연구주제라 할 수 있다. 다시 요약하면 이상적인 턱의 형태와 위치를 재건하고 정상적인 턱 운동을 회복시키며 상실된 치아의 형태와 기능을 회복시켜 균형 잡힌 얼굴과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관심을 가져왔고 앞으로도 계속 연구할 주제인 것이다. 이는 어느 하나도 따로 떼어내서 생각할 수 없으며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얼굴에서 치아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총체적 턱 얼굴의 기능적 재건이 꼭 필요한 이유가 이것이며 앞으로도 이를 위해 나를 포함한 구강악안면외과의들이 계속 노력할 것이다.

해외연수라는 시간은 나에게 많은 것을 주었다. 나의 치료법과 다른 치료법들을 비교해 볼 수 있었고, 아직 도입되지 못한 방법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했다. 유수의 학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인적 교류를 가질 수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발전적인 관계를



▲ 가족과 함께 간 아치스국립공원(Arches National Park)에서.

맺을 수 있었다. 논문으로만 볼 수 있었던 치료방법들을 직접 보고 비교할 수 있었던 것도 성과이고 나의 치료방법을 그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었던 것도 가슴 뿌듯한 경험이었다. 이러한 학문적인 성과 외에도 미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인식의 지평을 넓히며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좀 더 넓은 눈과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커다란 성과라 할 수 있겠다. 틈틈이 여행을 통하여 한국에서의 바쁜 생활로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던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미안한 마음을 면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 마지막으로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주대학교의료원과 치과학교실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송승일 교수 / 치과학교실



▲ Dr. Arnett 과 함께.



대를 이어 심장 돌보는 「또 하나의 가족」

조 교수 시절인 1997년 즈음인 것 같다. 60대 후반의 여자 환자가 보호자로 보이는 중년의 아들과 함께 진료실에 들어왔다. 환자는 매우 여윈 몸에 불안증이 있었다. 윗배 통증으로 개인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하고 약을 먹기도 했으나 호전되지 않자 3차 병원을 찾았다고 했다. 개인 병원 의사는 환자의 증상과 관련된 여러가지 검사를 했으나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자 심장 질환을 의심하고 순환기내과 진료를 권했던 것 같다.

관동맥 질환이 생기기 쉬운 고혈압, 당뇨병, 흡연 환자도 아니고 비만이나 운동 부족의 위험 인자도 없었기에 나 역시 반신반의하며 환자에게 관동맥 조영술을 권했다. 그런데 의심대로 오른쪽 관동맥에서 심한 협착이 발견됐다. 환자의 혈관 형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했지만 해당 병변 부위만 동맥경화증이 심한 상태였다.

환자는 혈관에 스텐트를 삽입하는 혈관확장시술을 받았고 이내 증상도 사라졌다. 환자와 아들은 무척이나 고마워했고,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통원하며 약물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관동맥협착증의 증상은 사라졌지만, 평소 식욕 감소와 불면증, 불안증, 위장장애 등의 문제가 있던 환자는 진료를 받을 때마다 내게 불편함을 호소했다. 심장을 잘 고쳐주었으니 나머지 증상도 꼭 고쳐달라는 하소연이 길어져 진료시간을 넘기기 일쑤였고 진료실 밖에선 대기 환자들의 불평이 심했다. 함께 온 아들 역시 이런 상황을 곤혹스러워했다.

외국 연수를 마치고 다시 진료를 시작한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이 진료실에 불쑥 나타나 자기를 알아보겠냐고 물었다. 항상 모친을 모시고 병원에 왔고 진심으로 어머니를 걱정하던 효자였기에 나는 그분을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 이번에는 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가슴 통증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고 했다. 문득 예전에 어머니가 앓던 협심증이 아닐까 싶어 병원을 알아보려 내가 다시 진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얼른 예약했다며 반색을 감추지 못했다. 나 역시 반가운 마음에 어머니의 상태를 물으니 여러 합병증으로 결국 돌아가셨다고 한다. 의사로서 아쉬움이 남는 환자였는데……. 고인의 명복을 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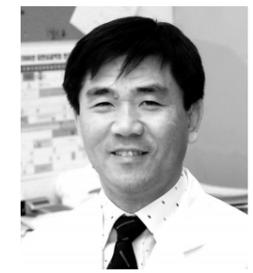


어머니처럼 아들도 심한 관동맥협착증이 발견돼 관동맥에 스텐트를 삽입했다. 흡연 등 위험 인자가 있어 계속 약물로 치료하며 생활습관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갔다. 시술 후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관동맥협착 증상은 없고 스텐트의 재협착이나 새로운 병변도 발생하지 않았다. 환자는 직장을 은퇴하고 작년부터 우리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우리 병원과 미화 분야를 계약한 용역회사에서 파견됐다고 한다. 가끔 오가다 마주치면 정말 반갑고 아침 회진 때 깨끗한 병원을 보면 그분의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환해진다.

아주대학교병원은 개원한 지 18년이 됐다. 긴 세월 동안 이곳에서 많은 환자와 가족을 만났다. 내가 진료하는 심장 질환은 병이 오래가고 쉽게 낫지 않아 병원 개원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만나는 환자가 꽤 있다. 그러다 보니 환자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 같은 병이 생기는 경우도 왕왕 보게 된다. 부부, 부모와 자녀, 형제가 같은 질환 또는 비슷한 질환으로 치료를 받는데, 의사 입장에서는 가족의 건강까지 믿고 맡기는 환자분들에게 고맙기도 하고, 또 책임감

으로 더 긴장되기도 한다.

아주대학교병원이 지금의 위치에 이를 수 있게 한 일등 공신은 자신의 몸을 믿고 맡기는 환자와 그 가족 그리고 지역주민의 커다란 사랑과 신뢰라고 생각한다. 이들에 대한 고마움을 나와 병원은 한시도 잊지 않을 것이다. 지역사회가 행복해지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진료에 임하고 싶다.



신 준 한 교수 / 순환기내과학교실



이름을 남기지 않는 사람들 반 고흐, 영혼의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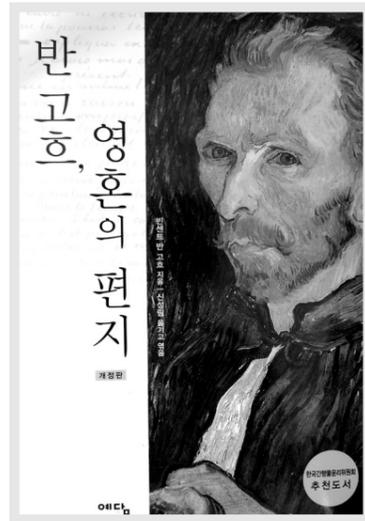
— 빈센트 반 고흐(1853-1890) 씀

학생들과 항생제 얘기를 할 때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일단 학생들 머릿속에는 시험에 나왔던 항생제의 작용기전과 기전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너무 많고, 다양하고, 「아니 그런 생각까지」하고 놀랄 뚝뚝하게 개발된 역사가 있지요. 우리는 항생제의 뚝뚝함에 놀라고 그 대단한 저력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개발되어온 항생제가 없다면 응급실이며 외래로 들어오는 그 많은 열병, 감염병 환자들을 무엇으로 치료하겠습니까? 그런 항생제는 정말 인류의 대단한 발견입니다. 그 대단한 항생제가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요? 수백 년 전 일 것 같지만 사실은 100년도 안된 역사입니다. 누구는 프랑스 사람 플레밍의 페니실린을 시작으로 쳐서 대략 1940년을 시작으로 봅니다. 그렇게 보면 70년밖에 안된 역사지요? 지금 살아계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태어난 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보다 조금 더 일찍 쳐서 1909년 살바르산을 시작으로 칩니다. 살바르산은 19세기 유럽을 휩쓸고 있던 매독을 치료할 수 있었던 첫 번째 그럴듯한 약제입니다. 살바르산이 나오기 전에는 수은을 썼는데 매독으로 죽거나 수은으로 치료받다 죽거나 수은 부작용으로 죽는 상황이었지요. 그러니 살바르산은 기적이었습니다. 1940년 페니실린이 사용되기 전까지 매독 치료로 유럽을 제패했지요. 이 살바르산은 1908년 노벨의학상을 받은 독일 의사 파울 에를리히의 업적입니다. 특정 염료가 특정 세포에만 염색되고 그 염료가 병균에 독성을 나타낸다면 그 미생물을 죽일 수 있으리라는 통찰을 했던 것입니다. 「마법탄환(Magic Bullet)」이라고 이름 붙인 개념입니다. 총알로 「과녁만」 맞추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험에 실험을 거듭해 마침내 606번째 화합물에서 목적을 이룹니다. 살바르산을 발견한 거지요. 606번째 화합물! 이제는 파울 에를리히와 연결되어 그의 업적으로 남았지만 나랑 학생들은 이 대목에서 갑자기 셋길로 빠집니다.

- 자 여러분! 606번째 화합물까지의 실험입니다. 대단하지요? 500번에서 멈출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끝내 갔지요. 그런데 이 실험은 누가 했을까요? 에를리히 선생이 했을까요?

- 아니요~.
학생들은 우렁차게 대답합니다.

- 그럼 누가 했을까요?
- 조교들이요~.
- 네.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름은 남기지 않았지만 이 실험은 아마도 실험실 연구원들이 다 했을 겁니다. 우리 그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 우와~ 짹짹.....

우리는 박수를 신나게 쳤습니다. 사실 그 박수는 한 세기 전의 연구원들을 위한 박수만은 아닙니다. 우리들 자신에게 보내는 박수이기도 합니다. 우리들 대다수는 지극히 평범해서 어느 곳에 작은 인간으로 평범한 인생의 희노애락을 겪다가 주변의 몇몇에게만 기억을 남기다 그마저도 한 세대 후에는 왔다가 흔적도 없이 이름없이 사라져갈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위로이고 격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러나 그런 우리라 해도 자랑스럽고 사랑스럽다.

고독하고 불운하기로는 세상에 둘째라면 서러워할 사람이 고흐 선생님입니다. 고흐 선생은 늘 밥벌이를 걱정하고 그림을 그려서 자신의 생계를 해결하고 물감을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했습니다. 그 고흐 선생이 평생 생계를 책임졌던 동생 테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 지난 5년간의 세월 동안, 나는 안정된 직장없이 늘 궁지에 몰린 채 방황해 왔다. 너는 내가 그동안 뒷걸음질만 치면서 나아해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할지도 모르지. 그러나 그 생각이 옳을까? 나도 이따금 밥벌이란 걸 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친구들이 선의를 베풀어 도와주

었지. 좋은 삶든 얻을 수 있는 것을 취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살아왔다. 내가 많은 사람의 신뢰를 잃었다는 건 맞는 말이다. 경제적인 형편도 좋지 않은 게 사실이고, 내 미래가 처량한 것도 부인할 수 없고, 더 잘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말도 맞다. 생계유지를 위해 노력했어야 할 시간을 낭비했다는 것도 맞는 말이고, 공부가 상당히 허술하고 빈약하며, 필요한 것을 모두 구하기에는 내가 가진 수단이 너무 보잘 것 없다는 말도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옳다고 해서 내가 점점 퇴보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것이냐?

그 모든 것이 옳다고 해서 내 삶이 무의미하고 쓸모없다는 결론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것이냐? 라고 나를 바꾸어 읽으면 제가 갑자기 그럴 듯해 보입니다. 고흐 선생은 자신의 그림이 팔리기를 희망하며 혹독한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평생에 단 한 점의 유희밖에 팔지 못했으니 그 아픔이 오죽했겠습니까? 실제 화가로 작업한 기간이 1881년부터 1890년까지 10년입니다. 그동안 그린 작품이 얼마일까요? 897점이라고 합니다. 그의 수련이 어느 정도였는지 상상이 되지요? 그런 혹독한 수련으로 세상에 저항했던 고흐 선생의 글이 위로가 되시는지요? 저는 위로가 됩니다. 한편 그만한 재능을 가진 것도 아니면서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지내는 게 너무나 많이 가진 게 아닌가 부끄럽기도 합니다.

아니 이게 감염병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구요? 물론 많은 상관이 있지는 않지요. 고흐는 감염병이 아니라 정신질환을 앓았거든요. 누구는 조울증이라고 누구는 간질이라 합니다. 누구는 물감에 섞여 있는 납중독이라 하지요. 감염병이 아니면 안된다면, 고흐는 감염병에 대해 이런 언급을 했지요. -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은 늘 나를 꿈꾸게 한다. 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 살아 있는 동안에는 별에 갈 수 없다. 증기선이나 합승마차, 철도가 지상의 운송수단이라면 콜레라, 결핵, 결핵, 암은 천상의 운송 수단인지도 모른다. - 요양원에 입원해서는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폐결핵이나 매독에 걸린 사람보다 더 끔찍한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고흐도 결핵, 매독, 콜레라를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뭐 별로 연관이 없대구요? 고흐의 동생 테오는 고흐가 죽은 지 6개월밖에 안되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형 옆에 묻혔지요. 뭐로 죽었을까요? 매독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당시 매독

은 유럽 인구의 10%가 감염되어 있었지요. 1891년에 죽었으니 살바르산은 구경도 못하고 운명을 맞이했을 겁니다. 이래도 제 얘기가 감염병과 상관이 없습니까? 고흐가 살던 시대에는 매독이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었다구요, 글썄. 그리고 1909년에야 수은 보다 좀 나은 살바르산이 발견된 거예요. 됐죠? 그래도 상관이 없다면 꼭 읽어보세요. 고흐의 편지를.

참, 고흐 선생은 열렬한 독서가이기도 합니다. 그의 편지 곳곳에는 그가 읽은 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미술사의 프랑스 혁명, 셰익스피어, 빅토르 위고의 책, 디킨스, 스톡, 아이스킬로스과 여러 작가들, 파브리 위스와 비다, 제라르 빌더스의 편지와 일기, 상시에가 쓴 밀레 전기, 모파상, 볼테르, 졸라, 도데의 책. - 그런 소설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할 것이다. 도대체 그는 늘 그리면서 또 읽고 있었던 것일까요?

인용: 반 고흐, 영혼의 편지 (빈센트 반 고흐 지음, 예담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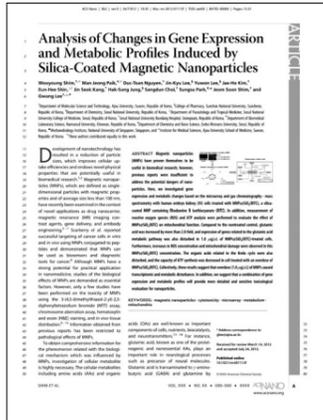
위 글에 소개된 도서는 의학문헌정보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최영화 주임교수 / 감염내과학교실



이광 교수, 종합적인 나노 독성 원리 규명해



▲ ACS Nano_지 9월 25일자.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의과연구소 이광 교수팀이 사람의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과량의 의약품 나노입자가 인체 세포에 유해하다(나노독성)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밝혀, 의약품 나노입자와 나노독성 바이오마커 개발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아주대의대 의과연구소 이광 교수와 서울대 이진규 교수가 주도하고 아주대 심우영 박사, 심점순 연구원, 김재호 교수 및 순천대 백만정 교수 등이 참여한 이번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일반연구지원(기본연구)과 대학중점연구소지원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고, 나노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인 「ACS Nano」지 최신호(9월 25일자)에 발표되었다.

나노입자는 10억분의 1미터 크기의 입자로, 분자나 원자를 조작하여 새로운 소재, 구조, 소자 등 제작에 사용되는데, 크기가 작으면서도 활용가능성이 무궁무진하여 산업체뿐만 아니라 의료, 바이오, 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광 받고 있다. 그러나 만일 나노입자가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지고 있다면, 나노입자의 부피당 비표면적(比表面積)이 매우 넓기 때문에 잠재적인 독성의 위험성도 그만큼 커져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나노입자, 이산화티타늄, 탄소나노튜브 등과 같은 나노입자는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세포에 염증과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유해한 독성이 강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의약품 나노입자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유발하는지는 종합적으로 규명되지 못했다.

이광 교수팀은 진단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되는

자성(磁性)을 띠는 나노입자가 과량으로 들어간 동물세포에서 활성산소가 증가하여, 궁극적으로 에너지의 합성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연구팀은 나노독성을 분석하기 위해 줄기세포의 추적과 검출, 세포 분리 및 약물 전달 등에 두루 응용되는 자성 나노입자(실리카 코팅 자성 나노입자)를 동물 세포에 넣었다. 그 결과 나노입자가 들어간 세포에서 활성산소가 증가하여, △ 정서불안 △ 불면증 △ 기억상실 등을 유발하는 신경전달물질(글루타메이트)을 축적시키고, 유전자를 변형시키며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킨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백만정 교수는 새로운 분석법(유기대사체 프로파일 분석법)을 나노독성 연구에 처음으로 접목하여 대사체 수준에서 분석하는데 성공하였다. 이것은 순수 국내 연구진이 만든 분석법으로, 나노독성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광 교수는 『이번 연구는 나노독성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세포 수준에서 종합적으로 밝힌 연구로, 특히 우리 연구진의 기술로 나노안정성 분야에서 거둔 괄목할만한 성과』라며, 『향후 인체에 해롭지 않은 의약품 나노입자 등을 개발하는데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연구의의를 밝혔다.



전문센터, 아주대학교병원의 중심(Center)에 서다

전문센터,
아주대학교병원의
중심(Center)에
서다

질환 중심의 전문센터 구축으로 환자편의 크게 향상될 것



아주대학교병원이 지난 8월 웰빙센터를 개소한데 이어 병원 본관의 리노베이션을 마치고 센터 중심, 질병 중심의 진료체계를 갖추었다. 웰빙센터 준공과 병원 본관의 리노베이션 등 아주대학교병원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유희석 병원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웰빙센터의 특징을 설명해 주신다면.

첫째는 환자와 건강한 사람이 함께 찾는 공간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단순히 질병 없는 상태를 넘어 몸과 정신이 모두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얼마나 오래 사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인가가 중요하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웰빙센터는 환자는 물론 건강한 사람의 건강을 더욱 증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질병치료와 더불어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공간이 되도록 전문화하였습니다.

둘째는 건강증진센터 확장과 더불어 암환자 쉼터인 「아주푸른공간」과 「아주스포츠의학센터」를 배치한 것입니다. 웰빙센터 내에 가장 전망이 좋은 곳에 암환자들이 모여 음악치료, 웃음치료, 명상치료, 미술치료 등을 받으며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아주푸른공간은 아주대학교병원이 암환자 치료는 물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100여 평의 넓은 공간을 암 수술이나 방사선, 항암치료 등으로 힘들어 하는 환자를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아주스포츠의학센터는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 등 스포츠의학 전문의들이 운동선수는 물론이고 일반인에게 적합한 운동의 종류와 방법, 운동량 등을 처방하여 주고 전문 트레이너의 지도아래 치료와 건강증진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전문센터입니다.

“

웰빙센터 개소에 이어
병원 본관의 리노베이션을 통해
센터 중심·질병 중심의
진료체계 강화

”

셋째는 병원 본관에 있던 외래 진료공간을 분산하여 고객에게 좀 더 쾌적하고 안락한 진료공간을 제공하게 된 점입니다. 사실 아주대학교병원은 1994년 개원 당시 일평균 약 2,500~3,000여 명의 외래환자를 가정하여 설계되었기에 지금처럼 일 4,300여 명의 환자가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병원 본관에 있던 14개의 진료과를 웰빙센터의 1~3층으로 옮겨와 분산 배치하여 고객들의 편의를 도모한 점입니다.

병원 본관의 리노베이션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료기능이 환자 중심, 센터 중심으로 변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진료공간의 배치가 진료과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환자의 이해나 접근이 쉽도록 질환별 기능중심의 공간배치를 하였습니다. 웰빙센터의 진료공간도 이러한 맥락에서 구성되었는데, 병원 본관의 외래도 고객중심의 기능형 공간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본관 2층에는 지역암센터를 중심으로 장기별 암센터가, 3층에는 심혈관센터가 위치하여 기능적 공간으로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환자의 만족도와 치료효율을 높이리라 기대합니다.

암센터를 강화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올해 발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에서 알 수 있듯이 아주대학교병원의 암 수술 성적은 매우 뛰어납니다. 그러한 자신감으로 경기 지역과 지방 환자들이 서울까지 가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암센터를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이미 아주대학교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경기지역암센터로 지정받아 암 예방사업과 암 조기검진 수행, 암 진료의 질 향상, 암 진료 인력 양성 등 암 치료와 예방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기에 환자분들이 믿고 찾고 계셨지만, 공간이 분리되어 불편함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리노베이션을 통해 환자들이 원스톱

으로 진료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본관 2층에 위암센터, 폐암센터, 간센터, 대장암센터, 유방암센터, 부인암센터와 통합의학센터를 두고 지하층에 위치해 있던 중앙혈액내과를 배치하여 환자들의 이동공간을 최소화 하였을 뿐 아니라 진료도 내과 진료 후 암이 의심될 경우 바로 같은 공간에서 외과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것입니다.

아주대학교병원의 또 다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아주대학교병원은 지방에 위치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에 비해 저평가를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JCI 인증 획득으로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측면에서 국제적인 수준을 인정받았고, 특히 소말리아 해적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었던 석해균 선장을 후송하여 성공적으로 치료함으로써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아주대학교병원의 위상을 드높인 바 있습니다.

아주대학교병원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중심병원과 권역별중증외상센터 유치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특히 권역별 중증외상센터 유치를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아주대학교병원이 갖는 공공적인 기능을 생각할 때 반드시 수주가 필요합니다. 권역별 중증외상센터를 유치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획기적인 중증외상센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이국종 교수를 비롯한 중증외상팀이 지금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소외영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보직자들도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웰빙센터 개소와 병원 본관 리노베이션, 연구중심병원 지정, 권역별중증외상센터 수주는 아주대학교병원이 제2의 도약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정리: 고제상 팀장 / 홍보팀)

전문센터,
아주대학교병원의
중심(Center)에
서다

암 예방에서 힐링까지 책임지는 암 관리 체계의 중심, 경기지역암센터

아주대학교병원은 2011년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경기지역의 암 관리 체계 구축을 책임지는 「경기지역암센터」로 지정을 받았다. 지역암센터는 암 환자의 건강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암 예방사업 및 교육 실시 △암 조기검진 수행 △암 진료의 질 향상 △암 진료인력 양성 △암 환자 통합 관리서비스 제공 △암 관련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암 연구와 진료, 관리에 있어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아주대학교병원은 경기지역암센터 지정과 더불어 올해 7월 지역암센터장에 방사선종양학과 전미선 교수를 임명하고, 지역암센터 산하에 6개의 암센터와 통합의학센터를 두는 등 암환자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치료와 관리가 가능하도록 대대적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특히 암센터가 허울뿐인 센터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주대학교병원은 진료체계와 진료공간에 대한 리노베이션을 감행하여 본관 2,3층에 6개의 암센터와 항암치료를 위한 중앙혈액내과 등을 전면 배치하며 진료시스템에 대혁신을 가져왔다.

본관 리노베이션을 통해 센터 중심의 진료체제로 거듭나며 경기지역 내 암 환자 치료와 관리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아주대학교병원 6개 암센터와 통합의학센터를 소개한다.

〈정리: 손미선, 남소라 / 홍보팀〉

간센터

뛰어난 실력과 특화된 치료시스템으로 최고의 간센터로 거듭나다

아주대학교병원은 기존에 있던 「간암센터」를 본관 리노베이션과 지역암센터 지정을 기점으로 간암뿐만 아니라 급, 만성 간염과 간경화, 간이식에 이르기까지 간질환을 통합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는 「간센터」로 확대 개편했다.



소화기내과와 외과, 영상의학과와 방사선종양학과가 협진하여 간질환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는 간센터는 매일 아침 회진 전 환자 상태에 대한 회의를 함께 진행하고, 2주에 한 번씩은 간센터 모든 의료진이 참석한 가운데 컨퍼런스를 실시해 환자

의 상태 변화에 따른 적절한 치료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본관 리노베이션을 통해 소화기내과와 외과 간질환 전문의가 본관 2층에 마련된 간센터 내에서 함께 진료를 실시하게 되어 주치의간의 의견 교환과 협진이 용이해지고, 환자들 역시 불필요한 이동이나 대기 없이 원스톱(One-Stop)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구성원 간센터장은 「간질환은 각 질환이 서로 연결되어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 만성 간염이 간경화로 진행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치료해야 하고, 간암을 조기에 진단하도록 정기적으로 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복수나 출혈 등의 합병증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아주대학교병원 간센터는 진단에서부터 치료, 그리고 추적관찰에 이르기까지 소화기내과와 외과, 영상의학과가 긴밀하게 협조해 각각의 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실제 간센터에서는 간암 환자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인 출혈 상황에 대비하여 1년 365일 어느 시간이라도 내시경적 치료가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아주대학교병원 간센터의 가장 큰 경쟁력은 각 분야별로 명성이 높은 명의와 출중한 실력이 갖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간질환의 진단과 추적관찰을 담당하는 소화기내과는 빠르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도록 환자 상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주치의가 직접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는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명의로 널리 알려져 있는 왕희정 교수가 이끄는 간외과는 풍부한 간 절제술 및 간이식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강경 간 절제술과 로봇 간 절제술도 활발히 시행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국내 최초로 다른 혈액형 간에 간이식을 성공하고, 간이식으로 혈우병과 간암을 동시에 치료하는 등 간질환 수술에 있어 선도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한 수술사망률 평가에서도 간암 사망률이 1.2%에 불과해 뛰어난 수술 실력을 증명했다. 간암은 여타 암과 달리 내과와 외과 외에 영상의학과에서도 최소 침습적 치료를 활발히 실시하고 있다. 간색전술과 고주파 열 치료, 정맥류 출혈, 항암제 투여시 케모포트(chemoport) 삽입 등 간암 환자 치료에 있어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아주대학교병원 간센터는 각 분야별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되 분야별로 국내 최고 수준의 특화되고 전문화된 치료 시스템을 갖춰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 간센터 의료진 | 센터장: 소화기내과 조성원 교수
- 소화기내과 조성원, 정재연, 김순선, 장은정, 정재호 교수
- 외과 왕희정, 김봉완, 박용근 교수
- 영상의학과 원제환, 김재근, 배재익 교수
- 방사선종양학과 노오규 교수
- 병리과 김영배 교수
- 진료문의 : 간센터 ☎ 031-219-7431



| 위암센터 |

내시경치료에서부터 로봇수술까지 최적의 치료를 제시하다

위암 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특화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아주대학교병원 위암센터가 본관 2층에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했다. 종래 서로 다른 층에 전문 과목 위주로 진료공간이 분리되어 있던 위암센터는 이번 리노베이션을 거치며 위암의 내과, 외과 전문 의료진이 한 공간에서 진료를 함으로써, 환자들의 불필요한 이동을 없애고 유기적인 협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여 한 차원 수준 높은 진료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위암센터는 위암의 진단과 내시경 치료 등을 담당하는 소화기내과와 수술로 치료를 하는 외과, 수술 전, 후 또는 수술이 어려운 환자의 항암 치료와 방사선치료를 담당하는 종양혈액내과와 방사선종양학과가 긴밀하게 협의 진

료하여 위암 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특히 아주대학교병원 위암센터는 위암 환자가 내원하면 진료 당일 기본검사에서부터 내시경 검사와 조직검사, CT 검사까지 신속하게 진행하여,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환자의 병세에 가장 적합한 치료가 시작되는 시스템을 갖추어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이를 위해 위암 전문 코디네이터는 위암 환자가 첫 내원할 때부터 치료 후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의료진과의 긴밀한 의견 교환으로 전체 치료과정에서 궁금증과 불편함을 최소화하며, 장기적으로 수술 후 기능 회복은 물론 재발의 위험까지 관리해 주고 있다.

조용관 위암센터장은 『위암센터는 일찍부터 위암 환자에 대해 원스톱 진료서비스를 실시해 가장 빠르고, 안전하며, 효과적이면서도 후유증이 적은, 환자 개개인에 적합한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위암센터 의료진은 매주 2회 모든 환자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소화기내과, 외과, 종양혈액내과, 영

상의학과, 병리과 의사들과 합동으로 주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좋은 치료성으로 이어져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수술사망률 평가에서 국내 평균은 물론이고, 서울의 대형 병원에 비해 월등히 낮은 사망률로 1등급을 기록하며 우수한 암 치료 실력을 입증했다. 위암센터는 조기 위암에 대한 내시경절제술과 복강경 위절제술, 로봇수술 및 개복수술에 있어 국내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갖추고 있어 우수한 치료효과와 함께 환자들의 만족도도 크게 향상시켜 왔다. 특히 최근에는 치료 기술의 진보를 바탕으로 내시경 치료와 복강경 수술의 경계에 있는 환자들에 대해 소화기내과와 외과에서 내시경과 복강경 수술을 동시에 진행, 위의 안팎에서 위암과 그 주변을 적절히 절제하여 조기 위암 환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있다. 이러한 유기적인 협의 진료가 위암센터의 조기, 중기 위암 환자에 대한 일차적인 노력이라면, 위암이 진행된 말기 위암환자에서는 수술 전 항암요법 후 절제술을 시도하거나, 수술 후 항암요법, 방사선치료 등 다각도의 노력으로 위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자 힘쓰고 있다.

이외에도 위암센터에서는 위암 수술 후 식이요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 수술 후 불편이나 영양관리 등 지속적인 관리에 도움을 주고,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추적 관리하는 등 위암의 재발 방지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위암센터 의료진 | 센터장: 외과 조용관 교수

- 외과 조용관, 한상욱, 허훈 교수
- 종양혈액내과 최진혁, 강석윤 교수
- 소화기내과 이기명, 임선교 교수
- 방사선종양학과 노오규 교수

■ 진료문의 : 위암센터(☎ 031-219-5976)

| 대장암센터 |

대장암 수술사망률 「Zero」,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내다



아주대학교병원 본관 2층에 자리 잡은 대장암센터는 센터 중심의 진료체제로 진료공간을 대폭 변경하며 대장암 환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원스톱(One-Stop)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외과와 소화기내과, 종양혈액내과, 방사선종양학과, 흉부외과, 영상의학과가 대장암과 직장암을 비롯해 전이성 암수술에 이르기까지



긴밀하게 협진하는 대장암센터는 대장암 전문 코디네이터의 조율하에 첫 진료 당일 병기 진단 검사와 수술 전 검사를 마치고, 결과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인 진료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원스톱 진료서비스

와 함께 3~4기 대장암에서 공격적인 치료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주대학교병원 대장암센터의 큰 특징이자 장점이다. 대장암센터는 말기 암 환자에서도 전이된 부분까지 해당 분야의 외과 전문의와 협력하여 적극적인 수술을 실시해 3기 암에서는 68%, 4기 암에서도 40%에 달하는 높은 생존율을 보이며 국내 최고 수준의 실력을 자랑하고 있다. 실제 최근 실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술사망률 평가에서 대장암은 2010년 기준으로 실제사망률이 「0%」로 조사돼, 예측사망률이 높은 말기 암 환자를 적극 수술함에도 불구하고 사망률과 합병증 발생률을 급격히 낮추는 경이로운 성과를 내고 있다.

대장암센터의 놀라운 치료성과 그 저변에는 외과의 수술실력 외에도 소화기내과와 방사선종양학과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큰 힘을 더하고 있다. 서광욱 대장암센터장은 『대장암 수술을 위해서는 장세척 과정이 필수적인데, 소화기내과의 내시경적 스텐트 삽입술 실력이 매우 뛰어나 대장암 치료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고 설명

한다. 또한 대장암센터는 1994년 개원 당시부터 방사선종양학과와 함께 선도적으로 직장암 환자에서 수술 전 항암방사선요법을 시행해 직장암 환자들의 생존율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 종양의 크기를 10분의 1로 줄인 후 수술을 실시하는 이 치료법은 당시 큰 반향을 불러왔으나 현재는 직장암 환자들의 보편적 치료법으로 자리 잡았다.

서광욱 대장암센터장은 『대장암은 그 질병의 특성상 복통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해 대장암 진단을 받는 경우가 무려 10~15%에 달한다』며 『의례 뿐만 아니라 응급실로 내원하는 대장암 초진 환자에 대해서도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진료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대장암센터의 숙제이자 목표』라고 밝혔다.

■ 대장암센터 의료진 | 센터장: 외과 서광욱 교수

- 외과 서광욱, 오승엽, 김도윤 교수
- 소화기내과 이광재, 선성재, 임선교 교수
- 방사선종양학과 전미선, 노오규 교수
- 종양혈액내과 강석윤, 이현우, 안미선 교수
- 영상의학과 이제희, 김영철 교수
- 병리과 김영배 교수

■ 진료문의 : 대장암센터(☎ 031-219-5976)

| 폐암센터 |

정확하고 신뢰 있는 치료로 폐암 정복에 도전하다

본관 리노베이션을 거쳐 아주대학교병원은 폐암을 전문적
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호흡기내과와 흉부외과, 기관지
경 검사실과 폐기능 검사실 등을 같은 진료공간에 두고, 폐암
센터의 새로운 모습을 갖췄다.

폐암센터는 폐암의 진단과
치료방침의 결정 및 치료 후
전반적 관리를 맡는 호흡기내
과를 주축으로 수술적 치료를
담당하는 흉부외과와 항암치
료를 실시하는 종양혈액내과,
방사선치료를 책임지는 방
사선종양학과 그리고 폐암 진단
에 도움을 주는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병리과가 매주 정
기적으로 흉부 컨퍼런스
(Chest Conference)를 열고

환자의 치료방향 결정에 있어 긴밀하게 협조하며, 폐암 환자에
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한다. 폐암의 첫 진료 관문인 호흡기내
과는 토요일에도 폐암 전문 의료진이 외래 진료를 실시해 보
다 신속한 진단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폐암 전문 코
디네이터를 두어, 검사와 치료 모든 과정에서 환자들에게 최대
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폐암 코디네이터는 폐암 의심 환
자가 내원하면 모든 검사를 신속하면서도 원활하게 진행되도
록 중재하고, 효율적인 협진이 이뤄지도록 연계하는 한편, 환
자의 상황을 고려해 진료 예약과 입원 일정을 조정하는 등 폐
암 환자에 대한 1:1 상담과 안내서비스를 제공해 환자들의 만
족도가 매우 높다.

폐암의 치료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수술적 치료가 우선 고려
되어야 하나 실제로 수술이 가능한 경우는 3분의 1에도 미치
지 못하고 있다. 수술이 어려운 진행기의 경우에는 항암화학
약물치료 및 방사선치료를 시행하게 되며, 수술 후에도 결과에
따라 보강 항암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폐암은 치료분야의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후가 불량하며, 조기발견이 무
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때문에 박광주 폐암센터장은 『폐암의
조기 발견과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흉부 CT 검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흉부 X-ray 검사만으로는 폐암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건강 검진시 저선량 CT 검사가 많이 권
장되고 있다』고 조언한다. 아주대학교병원 폐암센터가 폐암의
진단이나 예후를 평가하는 혈액 표지자 연구에 적극적인 것도
이러한 이유와 일맥상통한다. 표지자를 통해 폐암의 조기 진단
도 가능하고, 정확한 예후 예측으로 적절한 치료 방향을 결정
할 수 있다. 폐암센터의 활발한 연구 활동은 국제학술지 여러
곳에 폐암 관련 우수 논문이 연이어 게재되고, 우수 학술상을
수상하는 등의 결실을 맺으며 궁극적으로 폐암 환자의 진단과
치료의 질을 높이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폐암센터는 폐암 수술 분야에 있어서도 폐 절제 후 남은 폐
의 기능 손상을 최소화하는 기능 보존적 수술의 경험이 풍부
하고, 수술 후 합병증과 사망률이 낮아 폐암 환자들에게 최적
의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수술시 폐암 병소 인근 부위를
철저히 확인해 수술 후 병기를 정확히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술 후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 등 환자의 상태에 맞는 맞춤
치료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 폐암센터 의료진 | 센터장: 호흡기내과 박광주 교수

- 호흡기내과 황성철, 박광주, 신승수, 박주현,
이규성, 정우영, 정윤정 교수
- 흉부외과 최호 교수
- 종양혈액내과 최진혁, 이현우, 안미선 교수
- 방사선종양학과 오영택, 노오규 교수
- 영상의학과 박경주, 선주성 교수
- 핵의학과 윤준기 교수
- 병리과 이기범 교수

■ 진료문의 : 폐암센터 ☎ 031-219-4180, 4730

| 유방암센터 |

유방암 수술 「으뜸」, 최고의 실력으로 인정받다

2000년 유방클리닉을 개설하여 유방암 분야에 있어
서는 일찍이 특성화, 전문화 된 진료시스템을
구축해 온 아주대학교병원은 2006년 유방암센터로 확대, 개편
하며 유방암 환자에게 보다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본관 2층에 위치한 유방암
센터는 환자들의 이동 동선
을 줄여 한 공간에서 외과,
종양혈액내과, 방사선종양학
과, 영상의학과 등의 진료
가 동시에 가능하며, 특히 이
번 리노베이션을 통해 검사
공간 및 탈의실 등을 확장해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크게 주력했다.



외과와 방사선종양학과,
종양혈액내과, 영상의학과와

병리과, 성형외과와 재활의학과가 협진하는 유방암센터는 세
계 어느 기관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우수한 치료 결
과를 보여주며 유방암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유방암센터는 일찍부터 유방암 전담간호사를 두고 수술
전, 후 유방암 환자에 대한 전문 케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항
암치료를 받는 동안 발생하는 불편함에 대해 1:1로 세심한 상
담을 진행해 환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유방
암센터는 유방암이 의심되는 환자가 내원하면 당일 초음파검
사와 세포 및 조직검사를 실시해 빠른 진단과 수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최신 유방 진단 장비와 양성종양 제거를
위한 맘모톰 장비 등을 갖추어 보다 신속, 정확한 진단과 치료
를 가능케 했다.

최근 아주대학교병원 유방암센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10년도 유방암 병원진료비 분석 결과에서 국내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단기간 입원하여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조사돼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빠르고 섬세하

며 정확한 수술법을 구사하기로 정평이 난 유방암센터 의료진
의 실력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 유방암센터 정용
식 교수는 2002년부터 4년 연속으로 국내 종합병원 유방암 수
술 건수 개인 3위를 차지하는 등 많은 경험과 실력으로 이름
을 날렸고, 김구상 교수는 2008년부터 각종 의학 포털 사이트
에 유방암 명의로 알려지며 국내외 암학회에 우수 논문을 잇
따라 게재하고 있다.

유방암센터 의료진의 뛰어난 실력과 유기적인 협진 시스템
은 무엇보다 유방암 환자들의 생존율 향상이라는 결과로 이어
졌다. 정용식 유방암센터장은 『2009년 한국유방암학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 유방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2기 89%, 3기
64.4%인데 비해서, 아주대학교병원 유방암센터의 5년 생존율
은 2기 92.9%, 3기 77.2%로 월등하게 우수한 성적을 보여주
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아주대학교병원 유방암센터는 수술 전 항암요법에서부
터 외형적인 결과를 고려한 종양성형적 수술 및 유방동시재건
술 그리고 수술 후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에 이르기까지 다임
상과적 접근을 통해 환자의 나이와 특성에 맞는 맞춤 치료를
실시, 치료효과와 동시에 환자의 만족도까지 높이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 유방암센터 의료진 | 센터장: 외과 정용식 교수

- 외과 정용식, 김구상, 홍우성 교수
- 성형외과 박명철 교수
- 종양혈액내과 강석운, 안미선 교수
- 방사선종양학과 전미선 교수
- 영상의학과 강두경, 김태희 교수
- 핵의학과 안영실 교수
- 병리과 이용희, 임현이 교수
- 재활의학과 윤승현 교수

■ 진료문의 : 유방암센터 ☎ 031-219-4744

|부인암센터|

국내 부인암 환자 생존율 향상, 그 선두에 서다

아주대학교병원 본관 2층에 위치한 부인암센터는 산부인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병리과가 유기적인 협진을 통해 자궁암과 난소암, 난관암과 복막암 등 부인암을 좀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치료한다. 부인암센터는 매달 정기적으로 부인암 환자의 치료방향 결정과 예후 평가를 위한 컨퍼런스(Tumor Board)를 개최해 부인암 환자의 치료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부인암센터의 주축을 이루는 산부인과 유희석 교수와 방사선종양학과 전미선 교수는 개인 당시부터 협진시스템을 잘 갖춰 1994년 국내 처음으로 자궁경부암 환자에서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함께 실시하는 「동시항암화학방사선치료」를 도입, 국내 자궁경부암 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최근에는 부인암센터의 장석준 교수가 난소암 3~4기에서도 적극적인 수술을 통해 최대한 종양을 제거하는 것이 항암치료 효과를 높이고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학계와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장석준 부인암센터장은 『난소암은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와 병원에 따라 환자들의 예후가 크게 좌우되는 병으로, 아주대학교병원 부인암센터는 말기 난소암 환자에서도 최대한 남은 종양이 적도록 최대 종양감축수술을 실시해 해외 우수 의료기관과 견주어도 결코 뒤지지 않는 높은 생존율을 자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부인암센터는 자궁경부암과 자궁체부암 등 자궁암에서는 개복수술이 아닌 복강경수술과 로봇수술을 적극 실시하며 좋은 치료실적을 보이고 있다. 장석준 교수와 백지흠 교수가 주로 시행하는 복강경수술과 로봇수술은 수술에 따른 합병증과 회복기간을 줄여 환자만족도가 매우 높다. 특히 아주대학교병원 부인암센터는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된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자궁 전체가 아닌 복강경으로 자궁경부만을 들어내고 자궁은 살려 임신과 출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환자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치료방법을 찾아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암 환자의 병기 설정 수술 시에 철저한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하여 환자 생존율을 높이는 등 아주대학교병원 부인암센터는 부인암 환자의 치료효과와 생존율 극대화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다각도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부인암센터 의료진 | 센터장: 산부인과 장석준 교수
 - 산부인과 유희석, 장석준, 백지흠, 공태욱 교수
 - 방사선종양학과 전미선 교수
 - 영상의학과 이은주 교수
 - 병리과 이용희 교수

■ 진료문의 : 부인암센터(☎ 031-219-5597)

|통합의학센터|

암 환자의 전인적 치유를 돕는 중심센터로 자리 매김하다

아주대학교병원 통합의학센터는 2007년 4월 개소하여 환자들에게 보완요법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암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증상완화 및 사회적·심리적 지지를 위한 상담과 진료를 시행해 왔다. 2011년 6월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경기지역암센터로 지정받아 암 환자의 통합지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리노베이션을 통해 다른 암센터와 함께 본관 2층으로 자리를 옮기며 암 환자들에 대해 보다 지속적이고 통합적이며 체계적인 건강관리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통합의학센터는 지난 5년간 이미 암 환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 의료진이 직접 환자를 진료하고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해왔으며 타 병원에서는 볼 수 없는 전인적 서비스를 제공, 암 환자가 호소하는 다양한 증상의 원인을 총체적으로 파악해 전인적 치유를 돕는 중심센터로 자리매김했다.

전미선 통합의학센터장은 『예를 들어 암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은 암이 직접적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우울, 불안, 스트레스와 같은 정서적 문제,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가정문제 등 기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되기도 한다』며 『통합의학센터는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기존보다 더 체계적으로 개개인이 가진 다양한 요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접근하기 위한 「디스트레스 설문지」를 적용할 예정으로 내원하는 모든 암 환자들이 자신의 스트레스 원인을 알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스트레스 설문지는 환자들과 주치의 사이의 원활한 소통을 돕고, 통증과 디스트레스 점수가 4점 이상인 환자는 전문 교육을 받은 전담 코디네이터가 면담을 실시해 필요한 진료의뢰나 심층상담 또는 지역암센터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할 예정이다.

암 환우 교육과 홍보 공간인 「아주푸른공간」이 웰빙센터 6층에 신설되면서 통합의학센터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지 서비스



가 가능해졌다. 아주푸른공간에서는 현재 이완운동을 비롯하여 환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행복교실 △이완요법 △국산도 △웃음치료 △미술치료 △요가 테라피 △음악치료 △악순명상 등 건강한 몸과 마음의 치유를 돕는 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통합의학센터에서는 암 환자와 보호자 개개인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멘토 프로그램도 계획 중이다. 또한 심리, 사회적 지지와 꾸준한 운동, 체중관리 등의 건강관리와 말기암 및 재발, 전이암 환자들을 위한 완화상담과 정서적지지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아주대학교병원 통합의학센터는 환자들에게 더 유익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준 높은 강사를 선정하고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프로그램의 양적, 질적 수준을 높여 환자와 가족들에게 치료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어 심신치유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통합의학센터의 목표이다.

- 통합의학센터장: 방사선종양학과 전미선 교수
- 문의 : 통합의학센터(☎ 031-219-7124)

전문센터,
아주대학교병원의
중심(Center)에
서다

| 심혈관센터 |

맞춤치료, 정밀진단, 협진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쾌적한 공간으로 심혈관 치료의 중심에 서다



아주대학교병원 심혈관센터는 경기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심혈관 전문센터다. 1994년 아주대학교병원 개원과 함께 문을 열어 올해로 18년째 경기도민의 심장을 책임지고 있다. 수원뿐 아니라 오산·동탄·화성·용인 등에서 협심증·급성 심근경색 환자가 찾아오는데, 이는 심혈관질환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조직과 체계를 강화하여 순환기내과 신준한 교수를 센터장으로 임명했고, 본관 리노베이션을 거쳐 심혈관센터의 진료공간이 넓어져 내원객에게 훨씬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

협심증 환자는 맞춤치료=협착이 심해 보여도 꼭 필요한 환자만 찾아내 확장시술

우리 몸에는 심장으로 가는 혈관 세 가닥이 있다. 혈관조영술에서 이 혈관이 50% 이상 좁아져 있으면 대개는 바로 스텐트를 삽입하거나 관상동맥우회술을 실시한다. 그러나 아주대학교병원은 혈류의 압력을 재서 혈관의 협착 정도를 파악하는 「혈류역학검사」를 통해 병변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내 꼭 필요한 시술만 하기 때문에, 합병증 가능성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혈류역학검사는 혈관에 아데노신이라는 약을 주입해 혈류 상태를 사람이 운동할 때처럼 심장이 혈액을 가장 많이 뽑아내야 할 때로 맞추고 실제로 어느 정도 기능을 하는지 살펴보는 검사로, 그때 잔 압력이 기준의 80%를 밑돌

면 협착이 심하고 심근 허혈(혈류량이 부족)이 생겼다고 판단한다. 이 경우 대개는 바로 스텐트나 관상동맥우회술 등 심혈관 확장술을 시행하지만, 아주대학교병원은 「관상동맥 조영술에서 50% 이상 협착이 나타난 환자를 대상으로 혈류역학검사를 한 결과 최대 37%는 심근 허혈이 없었다」는 미국·유럽의 연구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혈류역학검사를 통해 꼭 필요한 환자에게만 확장시술을 하고 있다. 현재 아주대학교병원 이외에도 서울대, 인제대, 계명대 등 의대 부속병원이 이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고위험 환자는 정밀 진단=치밀한 검사로 정확히 진단하고, 수술 위험도 최소화하는 전략

혈관조영술에서 협착 정도가 약해 보여도 고위험 환자,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 환자나 당뇨병·뇌졸중·고혈압 환자는 혈관이 완전히 폐쇄되거나 구불구불한 가지가 쳐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초음파 등 더 치밀한 검사가 필요하다. 혈관조영술은 방사선 촬영을 통해 미리 혈관에 넣은 조영제의 그림자로 혈관 상태의 단면만 파악하지만, 혈관 내 초음파 검사는 혈관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의 혈관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복잡한 관상동맥 협착 질환은 대부분 관상동맥우회술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술이 매우 광범위해져 고위험 환자군에서는 위험도가 매우 커진다. 이에 아주대학교병원은 한 가지

치료만을 고집하지 않고 관상동맥우회술, 스텐트시술, 약물치료를 병합한 병합치료로 수술 위험을 최소화하고 치료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협진시스템=응급환자 혈관개통까지 60분, 독자적 응급시스템 「ACE」구축 덕분

급성 심근경색 환자는 약물치료보다 응급 중재시술(혈전을 시술 기구로 빼내거나 부풀려서 부수는 방법)이 성공률이나 사망률에서 훨씬 효과적이다. 심혈관센터는 응급 중재시술팀이 1년 365일 24시간 대기하고 있어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한 순간부터 막힌 혈관을 뚫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60분 걸린다. 의학적으로 권고하는 90분보다 훨씬 빠른 수준이다. 또 응급 중재시술팀 6명의 전문의는 국내외 심혈관중재연구회가 제시하는 기준을 훨씬 상회하여 일반 중재시술 횟수는 13배 이상, 응급 중재시술 횟수는 4배 이상의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신속한 응급치료는 병원 내 독자적인 응급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에 가능하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급하게 혈관을 뚫어야 하는 환자가 발생하면 컴퓨터에서 「ACE」 호출 아이콘을 누르고 순환기내과 의료진은 유·무선으로 전달받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시술을 신속히 준비한다. 응급 중재시술에도 심장이 멈추거나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닥치면 바로 흉부외과팀이 출동하여 수술한다.

넓고 쾌적해진 공간=외래 진료실 2개 늘고, 진료횟수 주당 14회 증가
웰빙센터 개소와 본관 리노베이션으로 진료공간이 센터체제로 개편되면서 심혈관센터도 진료공간이 확장되었다. 기존에 본관 3층에 위치했던 비노기과 공간 365㎡(111평)이 모두 심혈관 환자의 외래진료 공간으로 변경되면서 외래 진료실이 2개 늘고 진료시간도 주당 14회 증가하였다. 이에 외래진료를 받기위해 수개월 기다려야 하는 환자의 불편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3월에는 기존에 외래진료실로 사용하던 공간을 리노베이션하여 심장기능검사실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정리: 신미정 / 홍보팀〉

- 심혈관센터 의료진 | 센터장: 순환기내과 신준한 교수
- 순환기내과 탁승제, 신준한, 황교승, 윤명호, 최소연, 최병주, 임홍석, 양형모, 박진선, 서경우, 김진우, 최용우, 신정숙, 이유희, 박세준 교수
- 흉부외과 이철주, 홍유선, 임상현 교수
- 진료문의: 심혈관센터 ☎ 031-219-5717



전문센터,
아주대학교병원의
중심(Center)에
서다

소화기병센터, 내분비센터 등 환자 중심의 진료 공간을 위한 아주대학교

병원의 노력



1 소화기병센터

우리나라는 맵고 짜게 먹는 식습관으로 병원을 찾는 소화기 질환 환자가 가장 많다. 국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암 병명들을 보더라도 10대 암 중 위, 대장, 간, 담낭 및 담도, 췌장의 소화기 암이 다섯 개나 포함 될 정도로 소화기 암이 많다. 따라서 아주대병원 은 서구화된 식습관에 따른 소화기질환 환자의 급증 추세를 반영하고 또 분관 리노베이션을 계기로 소화기질환을 전문적이고 통합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는 「소화기병센터」를 신설했다.

소화기병센터를 찾는 환자 중 위암으로 진단 받은 경우는 위암센터로, 대장암으로 진단 받은 경우는 대장암센터로 바로 진료를 의뢰한다. 위암센터와 대장암센터는 모두 윈스톱서비스가 장점으로, 초진환자가 진료에서 치료 시작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1

주일을 넘지 않는다. 전문 코디네이터의 진행 아래 첫 진료 당일 병기 진단 검사와 수술 전 검사를 마치고 결과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위암센터와 대장암센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문을 참조하면 된다.

이에 최근 단행한 분관 리노베이션과 더불어 소화기병 환자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화기내과, 소화기외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등 소화기병 관련 진료과의 협진시스템을 구축하고 첨단 의료장비와 선진 진료체계를 갖추었다. 센터에는 세부 질환 별로 점막하종양클리닉, 위장관협착클리닉, 비만대사클리닉(배리아트릭 수술) 등 특수클리닉을 두어 특화된 진료를 하고 있다. 여기에 외과질환인 성인 탈장은 마침 탈장 전문의사들이 위암센터에 속해

있어서 탈장클리닉도 위의 각 클리닉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아주대병원은 대학병원 중 유일하게 점막하종양클리닉을 운영하여 전국 각지에서 많은 환자가 보이고 있으며, 활발한 논문 발표로 서울의 대형병원 의사들도 환자에게 내시경적 절제술을 권하며 환자를 보내오고 있다. 현재까지 총 6백여 명의 환자에게 점막하종양 내시경절제술을 시행, 높은 성공율과 낮은 합병증 발생률, 낮은 재발율로 외과적 수술과 동등한 좋은 결과를 보여 점막하종양의 내시경적 치료의 노하우를 인정받고 있다. 최근에는 난치성 질환인 위장관 협착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위장관협착클리닉도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소화기병 환자는 소화기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종양혈액내과, 병리과 등 여러 진료과가 관련되어 있다. 소화기병센터는 4개의 센터·과(위암센터, 대장암센터, 소화기내과, 췌담도 외과)로 구성되어 통합진료실을 운영함으로써 소화기병 환자에게 윈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료 시 필요한 경우 당일 내과 및 외과 진료가 모두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진료과가 모여 협진회의를 통해 최선의 치료법을 찾아머리를 맞대고 있다. 또한 소화기병센터는 소화기 관련 암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하여 암센터와 유기적인 협진 체계 구축을 통해 좀 더 효율적인 진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시경검사 전담 의료진을 두어 외래 내원 당일 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차별화 된 내시경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 소화기병센터 의료진
 - 위암센터 해당 부문 의료진 명단 참조
 - 대장암센터 해당 부문 의료진 명단 참조
 - 소화기내과(췌담도) 김진홍, 유병무, 황재철 교수
 - 췌담도 외과 김옥환, 김지훈 교수
- 진료문의: 소화기병센터 (☎ 031-219-5976)

1 내분비센터

아주대학교병원은 분관 리노베이션을 계기로 내분비대사내과와 갑상선외과의 진료기능을 통합하여 분관 3층 기존 안과 자리에 내분비센터를 개설했다. 이에 갑상선암을 포함한 갑상선질환에 대한 진단과 내·외과적 치료가 한 공간에서 이뤄지게 되면서 환자의 동선에 따른 불편이 한층 감소되었고, 내분비 질환 특히 갑상선 질환과 관련한 임상과의 협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윈스톱진료 등 진료의 효율이 높아졌다. 그리고 간호사에게 당뇨병이나 골다공증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공간과 당뇨교육실·영양상담실이 한 공간에 배치됨에 따라 환자 교육과 상담이 이전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당뇨병, 골다공증, 갑상선 분야의 검사를 수행하는 내분비검사실도 공간을 확장하여 종래 소화기내과 외래 공간으로 확장 이전하여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

(정리: 신미정 / 홍보팀)



- 내분비센터 의료진
 - 내분비대사내과 이관우, 정윤석, 김대중, 김혜진, 한승진, 최용준, 이민석, 안소연, 김부경 교수
 - 갑상선외과 소의영, 이정훈, 서수한 교수
- 진료문의: 내분비센터 (☎ 031-219-5954)

환자에게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아주대학교병원은 웰빙센터 개소 이후 여유 공간이 생긴 분관에 대한 리노베이션 공사를 진행하여 환자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있다.

지하 1층의 종래 종양혈액내과 외래와 수납창구였던 공간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신경계 검사실을 통합해 놓았다. 3층에 있던 신경심리검사실과 신경과 외래에 있던 뇌파 검사실, 뇌혈류 검사실, 근전도/유발전위 검사실, 초음파 검사실을 집합시켜 심리적인 안정 속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

지역암센터 산하 각암 센터들이 모여 있는 2층으로 자리를 옮긴 종양혈액내과 외래는 항암 치료를 위한 19병상의 외래 병상을 보유하고 있어 입원을 하지 않고도 전문 간호사의 조치 아래 통원 치료를 할 수 있다. 암과 혈액질환 환자를 위한 전담 항암 전문간호사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최신의 항암 치료를 안전하고 편하게 치료받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2층 주사실 내 소아 주사 공간이 웰빙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암 환

자와 관련된 골수이식 검사 공간과 성분 수혈실 공간이 확보되었다.

이외에도 1층 신경과와 신경외과, 정형외과, 2층 병리과, 3층 신장내과, 이비인후과는 검사실 공간이 대폭 확장됐다. 신장내과는 리노베이션 이후 기존 외과 자리인 3층으로 이전했다. 3개의 진료실과 초음파실은 그대로 옮겨왔고, 복막투석실이 확장되었으며, 무엇보다 진료 대기공간이 넓어져 진료환경이 좀 더 쾌적해졌다. 이비인후과는 3층 기존 외과 진료실 일부 공간을 개조하여 언어치료실 2개와 음성검사실이 옮겨갔고, 기존의 언어치료실과 음성검사실 자리는 청각검사실과 평형기능검사실이 공간을 차지하며 넓어졌다. 후각검사실은 13층의 수면검사실로 기능이 통합됐다.

별관 1층에 위치한 치과진료센터는 종래 정신과 낮병원 공간을 교정교진료공간으로 리노베이션할 예정이다. 아주대학교병원은 향후 1층 응급실 소아구역과 2층 소화기 검사실, 3층 심장기능 검사실 공간도 쾌적한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리뉴얼할 계획이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세상을 연결하는 이음병원

용인시 흥덕지구 내 수원 영통과도 맞닿은 신시가지 한 가운데 신축 건물 5~7층의 약 850평 공간, 191병상의 입원시설을 갖춘 이음병원은 지역사회 주민의 내과적, 정신과적 질환 치료 및 정신장애인의 사회재활을 위해 2011년 5월에 개원하였다.

병원전용 주차장이 있는 지하 2층에서 병원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내리니 깔끔하고 깨끗한 외래진료실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5층에는 외래진료실, 검사실, 낮병동, 개방병동, 상담실, 가족치료실이 있다. 6층은 정신과 병동, 7층은 내과 병동이다. 6층 및 7층 병동 한 가운데에는 광장처럼 넓은 홀이 있는데, 환우들과 치료진들이 열린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병원 인테리어 단계에서부터 기획한 것이라고 한다. 홀에서는 환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거나 심리극이나 병실모임 같은 그룹치료를 한다.

이음병원은 인권존중, 회복중심, 근거중심, 팀 접근, 지속가능이라는 5가지의 치료원칙을 가지고 단순한 질병의 치료를 넘어서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만성 질환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재활을 함께 고민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신체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이 조화롭게 되어야만 진정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에 내과와 정신과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6층 정신과병동에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주치의 외에 사례관리자가 따로 지정되어 환자의 세밀한 치료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필요할 경우 보호자가 치료회의에 참여하기도 한다. 7층 내과입원실 및 노인병동에 입원하게 되면 간병인의 돌봄을 받을 수 있으며, 자유면회와 외출이 가능하다.

외래진료에서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학습발달 클리닉, 노인정신건강 클리닉, 성인병 클리닉, 알레르기 클리닉, 관절염 클리닉, 우울증 클리닉, 불면증 클리닉, 알코올중독 클리닉, 트라우마 클리닉, 조현증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같은 건물 5층에 있는 이음예술치료 연구소와 함께 전문 예술치료사들을 통해 환자의 내면적 고통과 억압된 감정을 예술로 승화시켜 치료하며, 지역사회 아동과 부모를 위한 심리검사 및 학습치료와 심리치료를 실시하기도 한다.

지난 7월 우리나라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평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초청한 OECD 대표단이 중간 규모의 입원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모델로 이음병원을 방문하였는데, 이음병원의 치료시스템과 환자의 인권을 배려한 시설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지역사회 주민들의 활발한 자원봉사 참여, 관련학과 대학생들의 실습과 수련교육, 정신보건센터와 함께 하는 시민 정신건강 상담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대하고 있다.

이렇게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에 힘쓰며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지킴이가 되고자 노력하는 이음병원으로 도약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문의 :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86-10 수다프라자 5층
(☎ 031-212-1500)



▲ 대표원장 김신영



이세민 계장 / 진료협력센터

아의(亞醫) 선생

제75편 - 사경치료클리닉



글: 해부학교실 정민석 교수
그림: 홍보팀 오은영 계장

아주대학교병원의 사경치료클리닉은 사경(死境)을 헤매는 환자를 치료하는 클리닉이 아닙니다.



사경(斜頸)은 삐딱한 목을 뜻합니다.

아기의 목이 삐딱하거나 목에 혹이 만져지면 사경치료클리닉으로 옵니다.



어린이가 책이나 TV를 볼 때 목이 삐딱해도 옵니다.

어른의 목이 갑자기 돌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이 삐딱한 사람은 오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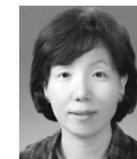


나는 사진을 찍을 때 목을 똑바로 하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사경인가?



12시 5분 또는 12시 5분 전

사경은 일찍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임신영 교수

사경치료클리닉은 여섯 세부 클리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천성근성사경 클리닉

측경 클리닉

연축성사경 클리닉

급성사경 클리닉

보톡스 클리닉

척추측만증 클리닉

여러 과의 전문의와 전문물리치료사가 각 환자한테 알맞은 방법으로 치료합니다.

재활의학과

성형외과

신경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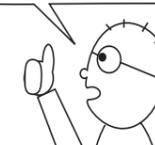
안과

병리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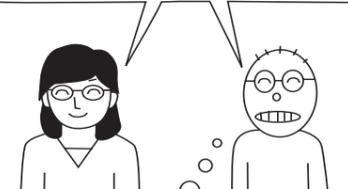


이처럼 사경을 짜임새 있게 치료하는 곳은 아주대학교병원뿐이어서, 환자가 전국에서 옵니다.

전국에 알려진 사경치료클리닉은 아주대학교병원의 얼굴 마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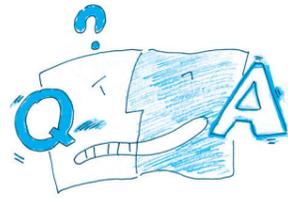


이런 얼굴 마담 덕분에 저희는 아의 선생을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수원에만 알려진 진료 분야는 새끼 마담인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온 몸에서 근육이 떨립니다



Q 37살 미혼 여성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한 7년 전부터 근육 떨림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했는데, 몇 년째 온몸에 눈에 보일 정도로 심하게 「톡톡, 두근두근, 울퉁불퉁」 또는 약하게 「파르르」 등 같은 느낌으로 부위를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근육 떨림이 일어납니다. 인근 병원의 진료를 받아봤지만 원인을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 증세도 병인가요?

A 근육 떨림은 일명 「근육다발수축」 혹은 「속상수축」이라고 합니다. 정상인에서도 발견될 수 있고 병적으로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대개 근위약이나 근위축이 동반되지 않는 것이라면 양성, 즉 정상인에게도 관찰되는 증상입니다.

이외에도 말초신경의 과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병도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근전도 검사를 포함하는 몇 가지 검사를 합니다. 검사의 종류에 따라 당일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근전도검사와 같은 특수검사는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증상이나 징후를 의사가 직접 관찰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병원에 오셔서 면담과 진찰을 받는 것이 진단의 첫 걸음입니다.

〈신경과 주인수 교수〉

신경과 외래 031-219-5656

AMC NEWS

개원 18주년 기념, 제10회 수원시 보건의료인 공로상 시상식 열려

아주대학교의료원과 수원시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일보가 후원한 「제10회 수원시 보건의료인 공로상 시상식」이 지난 9월 21일 아주대학교병원 지하1층 아주홀에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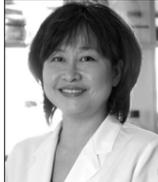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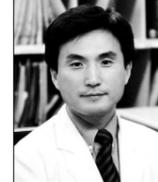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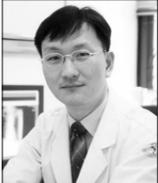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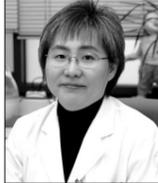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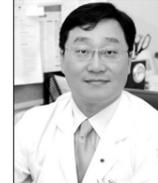
이날 시상식에는 소의영 의료원장, 임기영 의과대학장, 박지원 간호대학장, 유희석 병원장을 비롯해 이승규 경기일보 전무, 수원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보건의료 정책 부문에 정국영 의도리한의원 원장, 의료봉사 부문에 휴먼시티 의료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보건의료정책 부문의 수상자인 정국영 원장은 매주 주말 장금이(성인), 다산(대학생), 정조(중고생), 허준(초등학생) 등 의학전문 자원봉사자 양성교육과 외국인·노숙자·독거 및 치매노인·장애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건강지킴이 의료봉사 활동을 벌인 점을 인정받아 공로상을 받게 됐다.

의료봉사 부문에서 수상자로 선정된 휴먼시티 의료봉사단은 장안구보건소를 비롯해 관내 의사, 한의사, 약사, 공무원 등 12명으로 결성된 의료봉사단체로 지난 2005년부터 8년여 동안 지역주민들의 건강지킴이로서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들 수상자에게는 공로패와 각각 상금 300만원이 수여됐다.

시상식에서 소의영 의료원장은 「지난 2003년부터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한 분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시작한 것이 벌써 10회째를 맞이했다」면서 「의료인으로서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분들이 점차 늘어 지역 의료계의 본보기가 되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아주대학교의료원, 보직자 임명

 ● 백은주 의학과장	 ● 서혜영 의학과 부학과장	 ● 김재근 교무부학장
 ● 신승수 학생부학장	 ● 이윤환 연구부학장	 ● 정윤석 의학교육실장
 ● 이은소 의학문헌정보센터 소장	 ● 현명선 간호학과 부학과장	 ● 김대중 기획조정실장보

아주대학교는 지난 2012년 9월 1일자로 의과대학 의학과장에 백은주 교수(생리학 교실), 연구부학장에 이윤환 교수(예방의학교실), 의학교육실장에 정윤석 교수(내분비대사내과학교실), 의학문헌정보센터소장에 이은소 교수(피부과학교실)를 연임 발령했다. 신임 보직자에는 교무부학장에 김재근 교수(영상의학교실), 학생부학장에 신승수 교수(호흡기학교실), 의학과 부학과장에 서혜영 교수(해부학교실), 간호대학 간호학과 부학과장에 현명선 교수(간호학과)가 임명됐다. 내분비대사내과학교실 김대중 교수는 9월 15일자로 의료원 기획조정실장보에 임명됐다.



김철호 교수, 대한갑상선학회 유유제약학술상 수상



이비인후과학교실 김철호 교수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열린 대한갑상선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대한갑상선학회-유유제약 학술상」을 수상했다. 유유제약 학술상은 대한갑상선학회에서 앞으로 추진할 연구 내용을 심사하여 갑상선학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김철호 교수는 국책공동과제를 통해 새롭게 개발된 압표적치료 신규물질인 치료용 항-death receptor 단일클론항체를 이용하여, 기존의 방법으로 치료가 어려운 난치성 갑상선암에 대한 항암효과 및 기전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홍석 졸업생,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에 선정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생 김홍석 박사가 최근 생물학연구정보센터 홈페이지(bric.postech.ac.kr)의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에 소개되는 영광을 안았다. 김홍석 박사는 지난 9월 18일 세계적인 국제학술지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PNAS)」에 「Redox regulation of MAPK phosphatase 1 controls monocyte migrationmacrophage recruitment」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며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에 선정됐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생이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에 소개된 것은 제2회 졸업생인 박태준 교수에 이어 두 번째다. 김홍석 박사는 아주대 의과대학 6회 졸업생으로 생화학교실에서 박사학위를 수여(지도: 임인경교수)하고 현재 UT Health Science Center, San Antonio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간호대학, 2012학년도 학술대회 성황리에 개최

아주대학교 간호대학은 2012년 10월 4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아주대병원 별관 대강당에서 2012학년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생태학적 접근을 통한 간호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생태학적 접근의 활용(한림대 의과대학 배상수 교수) △건강증진 행위에서 사회생태 모형 적용(서울여자간호대학 윤희상 교수) △건강가족 개입을 위한 생태학적 개념모형(동덕여대 사회복지과 윤종희 교수) △생태학적 접근을 통한 정신장애인의 임파워먼트(아주대 간호대학 현명선 교수) △생태학적 접근을 통한 병원간호사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관리 프로그램(기톨릭대 간호대학 이종은 교수)에 대한 발표와 토의가 진행됐다. 이날 학술대회의 시작을 알린 박지원 간호대학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간호 대상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사회생태학적 이론과 연구결과를 고찰하고, 과학적 지식체를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간호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보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학술대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소의영 아주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격려사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건강 개념을 사회생태학적으로 접근하여 인간이 사회 환경 속에서의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연관성을 통합적으로 논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건강 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매년 다양한 주제의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노고하고 계신 간호대학장님 이하 간호대학 교직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의학문헌정보센터, 주제별 정보서비스 신규 오픈



의학문헌정보센터는 2012년 9월 3일부로 교실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Libguides 웹사이트(http://libguides.ajou.ac.kr/)를 새롭게 오픈했다. Libguides 웹사이트는 각 주제별로 정보를 선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은 해당 주제분야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현재 13개 주제분야가 제공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주제분야를 추가하여 50여 개의 주제분야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웹사이트는 의학문헌정보센터 홈페이지 상단의 주제별 정보서비스 메뉴를 선택하여 접속 가능하다.

「위장관 협착클리닉」 개소

아주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에서는 최근 난치성 질환 중 하나인 위장관 협착에 대해 국내 최고 수준의 진료와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자 「위장관협착클리닉」을 개설했다. 위장관협착은 적절한 치료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여러 합병증을 유발하는 난치성 질환으로, 가능한 조기에 발견해 내시경 시술을 통해 치료하고,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하여 합병증을 예방해야만 하는 질환이다. 아주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에서는 200여 명의 위장관 협착 환자에 대해 내시경 시술을 실시하고, 만성체장염에 동반된 협착, 식도 및 위출구 양성 협착, 양성 담도 협착 등 다양한 위장관협착에 대해 풍선확장술이나 스텐트 삽입술을 실시하는 등 풍부한 임상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좋은 치료 실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좀 더 효과적인 위장관협착 치료를 위해 「마이코마이신을 이용한 치료 연구」를 진행할 계획으로, 이미 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식약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외에도 동물 위장관협착 모델 개발에 성공하여 이를 이용한 다수의 연구도 계획하고 있으며, 위장관협착에 최적화된 스텐트 개발도 진행하고 있어 위장관 협착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실력과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개설된 위장관협착클리닉에서는 좀 더 전문적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최적의 연구여건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문 진료는 소화기내과 김진홍, 이기명, 황재철, 임선교 교수가 담당한다.

도서기증

아주대의대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미국 플로리다대학 Paul W. Chin박사가 의학도서 "Human Anatomy" 외 250여 권을 의학문헌정보센터에 기증했다.

체육지도자 스포츠 클리닉 교실 개최

아주대학교병원은 지난 9월 10일 오후 경기체고 웅비관에서 경기도 내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각종대회 참가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스포츠 클리닉 교실을 개최했다. 아주대학교병원과 경기도체육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강연회에는 성형외과 박명철 교수(경기도체육회 이사)를 비롯해 도내 체육지도자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형외과 이두형 교수, 재활의학과 윤승현 교수, 가정의학과 김범택 교수가 현장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맞게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뇌졸중 집중치료실
대한뇌졸중학회 전문치료실 인증**

아주대학교병원이 최근 대한뇌졸중학회에서 뇌졸중 전문치료실 인증을 획득했다. 대한뇌졸중학회에서는 뇌졸중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뇌졸중 환자를 입원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뇌졸중 전문치료실의 설립을 권장하고 있으며, 학회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뇌졸중 전문치료실로 인증하고 있다. 이에 아주대학교병원은 2007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뇌졸중 집중치료실(Stroke Unit)이 △시설 및 공간 △운영지침 △운영현황 △Monitoring 기능 △인력 및 조직 △교육프로그램 △혈전용해술 현황 △조기재활현황 등 인증 요건에 모두 부합하여 「뇌졸중 전문치료실」로 인증 받았다. 인증기간은 2012년 9월1일부터 2015년 8월31일까지다. 9층에 위치한 뇌졸중 집중치료실은 총 6개의 병상으로 운영되며, 대략 5일 동안 입원하여 집중치료를 받으며,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해 즉각적인 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위암센터,
「제6회 위암 심포지엄」 개최 안내**

아주대학교병원 위암센터에서는 오는 10월 26일 금요일 오후 3시 별관 대강당에서 「위암의 진단과 치료」를 주제로 제6회 위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위암 환자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위암의 최신 치료가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위암 환자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환자의 궁금증에 대하여 소화기내과, 중앙혈액내과, 외과 교수들에게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있고, 전문 영양사에게 위암과 관련한 영양관리법을 들여보며, 전시된 위에 좋은 음식들을 직접 시식해 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다.

이날 심포지엄은 △위암 및 전암 병변의 내시경 진단(소화기내과 이기명 교수) △위 병변의 내시경 치료(소화기내과 강준구 교수) △위암 최신 수술법, 수술 결과, 성적(외과 한상욱 교수) △암을 이기는 식단(경기지역암센터 박종숙 요리연구가) △위암 환자에서 빈혈 및 관리(중앙혈액내과 강석윤 교수) △위암 환자의 수술 후 관리(외과 허훈 교수)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며, 강의 중간에는 「암을 이기는 식단」을 주제로 전시된 음식을 직접 시식해 보는 기회가 주어진다. 위암 환자와 가족, 평소 위 건강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이번 심포지엄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위암센터(☎031-219-4181)로 문의하면 된다.

제9회 아주페스티벌 성황리에 개최

아주대학교의료원은 지난 9월 6일 오후 5시부터 별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18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제9회 아주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올해 아주 페스티벌에는 총 17팀(개인6팀, 단체11팀)이 참여해 숨겨둔 끼를 맘껏 발휘하며 뛰어난 기량으로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 교직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이날 단체 최우수상에는 탄탄한 스토리와 서로 간의 좋은 호흡을 보여준 박지연 외 11명(어린이집), 우수상에는 노규봉 외 8명(응급실), 인기상은 원성범 외 4명(EICU), 아차상에는 이승용 외 7명(영상의학과)이 차지했다. 개인부분 최우수상은 뮤지컬 배우 같은 노래실력으로 갈채를 받은 유태웅(입원원무팀), 우수상은 통기타 연주의 조아해(CUB), 인기상에는 민영기 교수(응급의학과), 아차상은 이동규(고객상담실) 참가자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간이식인회,
가을야유회 및 장기기증 캠페인 실시**

간이식 환우들의 모임인 아주대학교병원 간이식인회(회장 이홍재)는 지난 9월 14, 15일 양일간 가을 야유회 및 장기기증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간이식인회 회원과 가족 30여 명이 참여해 사랑도 옥녀봉 등 산로에서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장기기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자연보호활동도 펼쳤다.



-방송: KBS 생로병사의 비밀
-일시: 2012. 9. 1(토)
-출연: 소의영 의료원장
 병리학교실 김장희 교수
-내용: 갑상선암의 습격



-방송: KBS 뉴스 12 / MBC 뉴스데스크
-일시: 2012.9. 3(월)
-출연: 핵의학교실 안영실 교수
-내용: 성폭행 피해 여성, 뇌기능 이상 소견 /
 성폭행 피해자, 뇌도 망가진다



-방송: KBS 뉴스광장
-일시: 2012.9. 7(금)
-출연: 가정의학과교실 김광민 교수
-내용: 40대부터 근육량 감소,
 맞춤운동 필요



<입 · 성기 부위 헐고 눈 염증 반복면
배체트병 의심>
- 문화일보 | 2012. 8. 28(화)
- 피부과학교실 이은소 교수



<소아 10명 중 8명 중이염,
귀 자주 잡고 진물 나면 의심>
- 조선일보 | 2012. 9. 3(월)
- 이비인후과학교실 정연훈 교수



<성폭행 충격으로 장기적 뇌손상 올 수도>
- 조선일보 | 2012. 9. 4(화)
- 핵의학교실 안영실 교수



<얽드려 재우는 게 주요 원인
가슴 압박 심장마사지 실시>
- 국민일보 | 2012. 9. 4(화)
- 소아청소년과학교실 박세진 교수



<고지방 섭취 · 운동부족 · 스트레스가
혈관 질환의 주범>
- 한국일보 | 2012. 9. 4(화)
- 순환기내과학교실 탁승제 교수



-방송: KBS 뉴스9
-일시: 2012. 9. 10(월)
-출연: 정신건강의학교실 신윤미 교수
-내용: 소아 정신질환 조기 치료 시급



-방송: YTN 사이언스 의학칼럼
-일시: 2012. 9. 17(월)
-출연: 정신건강의학교실 정영기 교수
-내용: 마음의 감기, 우울증



-방송: Tbroad 뉴스
-일시: 2012. 9. 18(화)
-출연: 소의영 의료원장
-내용: 웰빙센터 준공식(질병예방과
 웃음치료까지)



-방송: 연합뉴스 TV 뉴스Y
-일시: 2012. 9. 20(목)
-출연: 유희석 병원장
-내용: 암환자 심신 다스리는 「암 환자 심터」



-방송: MBC 시사매거진 2580
-일시: 2012. 9. 23(일)
-출연: 외상외과 이국종 교수,
 인문사회이학교실 허윤정 교수
-내용: 생사의 갈림길 1시간



<최근 아동·여성 대상 범죄
사회적 시스템 마련 급선무>
- 경기일보 | 2012. 9. 10(월)
- 유희석 병원장



<“아이고 허리야”
젊을수록 통증 강도 심하다>
- 경향신문 | 2012. 9. 14(금)
- 마취통증의학교실 양중윤 교수



<‘침묵의 시력도둑’ 조기검진으로 잡자>
- 경인일보 | 2012. 9. 18(화)
- 안과학교실 안재홍 교수

아주 사랑나눔 동참에 감사드립니다

의료원 발전기금

● 김윤기 행정부원장, 1000만 원

김윤기 행정부원장이 아주대학교의료원과 아주대학교에 발전기금으로 각각 1,000만 원을 약정했다. 앞으로 매월 10만 원씩 2016년 4월까지 급여공제하게 된다.

김윤기 부원장은 『아주대학교 동문으로서 의료원과 아주대학교 걸쳐 크고 작은 중책을 수행해 오면서 평소 기회가 되면 실천하려고 마음먹었던 일을 작게나마 실천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 외부 독지가, 1350만 원 등

-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 거주하는 무명의 독지가가 의료원 발전기금으로 13,500,000원을 약정했다.

- 아주대학교 동문이며 현재 명동칼국수샤브샤브(아주대점) 대표인 신재숙 님이 올해 8월부터 매월 10만 원씩 의료원 발전기금 기부를 약정했다.

● 정혜근 직원, 50만 원 급여공제 약정

외래원무팀 정혜근 계장은 지난 8월1일 50만 원을 의료원발전기금으로 기부 약정했다. 정혜근 계장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5차례 이상 약정과 급여공제를 꾸준히 해왔으며, 『적은 금액이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기부를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 고객상담실, 50만 원

고객상담실 직원(이동규 실장, 유동문 과장, 최명순 과장) 일동은 지난 9월12일 의료원 개원기념식에서 공로상 수상 후 상급 일부를 의료원 발전기금으로 전달했다. 고객상담실은 평소 고객의 소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불만 사안을 적극 해결함으로써 의료원 위상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 그 외 교직원 기부

신지숙(경리팀) 50만 원, 이태경(인사복지팀) 50만 원, 장대현(진단검사외과) 36만 원, 박하늘(신경과 전공의) 100만 원을 각각 의료원발전기금으로 약정했다.

의과대학 발전기금

● 의학부 발전 기금

- 9월 4일 이승희 님(의과대학 학부형) 1,000,000원

의과대학 발전기금은 2004년부터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기금으로 3억2천만 원이 모금되었다. 그동안 주요 기금사용 내역은 송재관 계단강의실 환경개선(리모델링), 기숙사 침대·책상교환, 6학년 학생 공부방 개선, 자율열람실, 동아리방 환경 개선 등으로 약 2억4천만 원이 집행되었다. 본 기금은 학교 등록금 예산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다양한 학생 복지 개선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운영 중이다.

● 의대 교수 장학기금

현재 150명 참여, 월 5,160,000원 기부.

간호대학 건축기금

● 간호대 교원 11명, 1억2천여 만 원

간호대학 건축기금은 간호대학의 교육공간 확보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14년 독립건물 착공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 중이며, 지난 6월부터 모금을 시작하여 현재 11명의 간호대학 교원이 총 1억 2천 여만 원을 약정했다.

- 김용순 교수 30,000,000원, 박지원 교수 10,080,000원,
- 유문숙 교수 10,000,000원, 송미숙 교수 10,008,000원,
- 현명선 교수 10,080,000원, 유혜라 교수 10,000,000원,
- 김춘자 교수 10,000,000원, 박진희 교수 8,000,000원,
- 송주은 교수 8,000,000원, 유미애 교수 8,000,000원,
- 박형란 교수 8,000,000원

아주사회사업기금

● 외부 후원

- 8월 27일 김기현 50,000원, 최수영 20,000원
- 8월 29일 동전모금 263,670원, 무기명 155,130원
- 8월 31일 한국혈액암협회 4,000,000원
(주)한창투어리무진 50,000원

● 교직원 후원

(소속별 가나다 이름순)

<3층집중치료실A> 김미선, 김복연, 김분아, 김태순, 김혜숙, 나연순, 남수민, 박명자, 박정태, 이윤주, 이정순, 조일지, 한지은, 홍수미 <3층집중치료실B> 김경미, 김효진, 김희연, 남애리나, 박현선, 인수경,전수미, 조혜정, 홍수정, 홍혜전 <4층 서> 박양숙, 박혜영, 이금덕, 정영선, 조은숙, 한상희, 홍은주 <5층 서> 고은숙, 김경옥, 라인옥, 엄경태, 유순화, 이영애 <5층 집중치료실> 김미정, 문경선, 배윤진, 유선자, 이민영, 이수연, 함정화, 홍윤주 <6층 동> 유영숙, 윤연숙, 이예리, 이정아, 한형화 <6층 서> 공태현, 김미옥, 김선영, 김수경, 김의경, 신현경, 윤지애, 정경화, 정미옥, 조은미 <7층 동> 강채리, 구유미, 김복란, 김연수, 김영선,김은희, 김정민, 김정순, 김진숙, 김현정, 김효진, 박상미, 박정은, 윤도영, 이남경, 이윤정, 이지선, 이현정, 이화숙, 장지연, 황인정 <7층 서> 김기남, 김은선, 박다정, 이은호, 전정임, 최아영 <8층 동> 이윤정 <8층 서> 김연호, 노영덕, 박경숙, 박혜란, 유지원, 장윤미, 정윤선, 정윤자 <9층 동> 김옥경, 노예슬, 박명분, 이은희, 이혜정 <9층서> 김현정, 이민선, 이소영, 최혜진 <10층 동> 김진연, 김혜용, 남경현, 복찬홍, 지규석, 최도관, 한지선 <10층 서> 길경수, 오은주, 이소라, 이진희, 이현아, 이혜선, 지수용, 홍미라

< 이후 소속별 후원자 명단은 다음 호에 이어서 게재됩니다.>

중증외상 환자를 위한 도서기획전 개최 안내

아주대학교병원에는 오는 10월 8일부터 20일까지 병원 1층 로비에서 중증외상 환자 지원 기금 마련을 위한 도서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도서기획전에서는 유·아동 서적, 소설, 자기계발서, 요리, 건강서적, 퍼즐 등 400여 종의 도서를 65~45% 할인된 가격에 판매, 도서 판매 총액의 25%를 중증외상 환자 치료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주대학교병원은 2009년부터 정기적으로 「희망나눔 도서기획전」을 열고, 그 수익금으로 환자 및 소외된 지역주민을 지원하고 있다.

후원 방법

현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재산 형태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시 각 담당자에게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주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 무통장 입금 SC은행 692-20-307934
SC은행 692-20-166907
(예금주: 아주대의료원)
- 안내전화 발전기금 사무국 ☎ 031-219-4000

의과대학 발전기금

- 의학부 발전기금 SC은행 692-20-307923
- 의대교수 장학기금 SC은행 632-10-026880
(예금주: 아주대의료원)
- 안내전화 의과대학 교학팀 ☎ 031-219-5317

간호대학 건축기금

- 무통장 입금 SC은행 692-20-217098
(예금주: 아주대의료원)
- 안내전화 간호대학 교학팀 ☎ 031-219-7007

아주사회사업기금

- 무통장 입금 SC은행 692-20-161479
(예금주: 아주대의료원)
- 안내전화 사회사업팀 ☎ 031-219-4747

후원자 예우

후원금액	예우
1백만 원 이상	건물 벽면에 회원 성명 영구 보존
5백만 원 이상	차량 출입증발급(1년) 건물 벽면에 회원 성명 영구 보존
1천만 원 이상	종합건강진단 무료 쿠폰 증정(1매 1회) 차량 출입증발급(3년) 건물 벽면에 회원 성명 영구 보존
5천만 원 이상	종합건강진단 무료 쿠폰 증정(2매 1회) 차량 출입증발급(10년) 건물 벽면에 회원 성명 영구 보존
1억 원 이상	종합건강진단 무료 쿠폰 증정(2매 평생) 차량 출입증발급(평생) 건물 또는 실 명명 건물 벽면에 회원 성명 영구 보존

아주대학교병원 외래진료 시간표 (2012년 10월 1일 현재)

아주대학교병원
주요 전화번호 안내

- 대표전화 : 1688-6114
- F A X : (031) 216-6656
- 전화예약 : (031) 219-5451
- 고객상담실 : (031) 219-4242
- 종합안내센터 : (031) 219-5500~1
- 외국인안내 : (031) 219-4311
- 응급의료센터 : (031) 219-7700
- 건강증진센터 : (031) 219-5555

진료과명	의사명	오전	오후	세부진공	비고
해안외과 5939	윤준기	목	목	핵의학(간단, 동위원소치료)	
	안명실	수	수	핵의학(간단, 동위원소치료)	★
	이수진	목	목	종양핵의학, 동위원소치료	
일반진료					
이경종	월, 수, 목	월, 금	직업성 질환,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		
박재범	화, 금	화, 목	직업성 질환		
민경복	월, 목	수	직업성 질환, 환경성 질환		
일반진료					
이득주	월, 수, 목	금	갱년기, 노화관리, 류마티스	★	
김영민	월, 수, 금	목	남성갱년기, 피로, 노화관리	★	
박성별	화, 금	월, 수	여성갱년기, 스트레스, 가족상담	★	
김범택	월, 수	화, 목	골다공증, 갱년기, 대사	★	
주남석	해외연수중		비만, 금연클리닉, 건강증진		
조두연	금	수	건강증진, 피로		
김규남	수, 목	월, 금	건강증진, 피로		
홍두희	월	목	건강증진, 피로, 노화관리		
박수정	화	금	건강증진, 갱년기		
김수연	월, 목		건강증진, 갱년기		
조성환	수	화	건강증진, 노화관리		
치과					
백광우	화, 목, 금	월, 수, 금	진료치료, 치아우식증치료, 경예우치료, 소아치과	★	
정규립	화, 목, 금	화, 목, 금	치열교정, 설측교정, 대방교정, 금속교정		
이정근	화, 수, 목	목	임플란트, 안전한기형, 외상		
송승일	화, 금	월, 화, 목	턱관절 장애, 임플란트, 악교정 수술		
하승룡	화, 목, 금	화, 목, 금	고정성·가철성 보철, 임플란트보철, 심미보철		
홍성태	월, 화, 수, 목	화, 목	치아우식증, 신경치료	★	
한금아	월, 수, 금	월, 화, 수	잇몸염증, 치주수술, 치은성형, 임플란트		
방김미	월, 수, 금	금	임플란트, 구강악안면외상, 턱관절 질환	★	
남경연	월, 수	월, 수, 목, 금	치열교정, 설측교정, 예방교정, 금속교정		
일반진료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이후만 초진 가능		

진료과명	의사명	오전	오후	야간	세부진공	비고
00 의학과 777	조준필	수, 목	화		외상외과, 응급질환	
	정윤식	화	수	목(1,4주)	소생의학, 중독학, 응급질환	
	이국중	금	월, 수		외상외과, 외과계 응급질환	
	민영기	월	화	목(2,3주)	응급질환, 중환자의학, 중독학	★
	김기운	금	월	화, 금(1주)	응급질환, 소생의학	
	최상천	목	금	월	응급질환, 중독학	
	이지숙	월	월, 수		응급질환, 소아응급	
박은정	수	목, 금		응급질환, 소생의학		

▲ 응급의학과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순번대로 진료합니다.

진료과명	의사명	오전	오후	세부진공	비고
응급 5979	손영배	화, 수, 금	월, 목	염색체상 및 유전질환, 유전성 대사질환, 발달장애, 인공 및 가족성 응급질환	
	양종운	화, 수, 금	월, 목	염색체상 및 유전질환, 발달장애, 인공 및 가족성 응급질환	
한신 병원 클리닉 6088	신윤미	월, 목	화, 목	소아·청소년 정신과, 틱장애, 자폐장애	
	조선미		월, 수	심리검사 프로그램	
	이주영	월, 목	화		
신경 통증 클리닉 5896	김도원	화, 수, 금, 토(2,4주)	화, 수	대장동맥염, 구역증, 항염제 치료, 척추수술 후 통증 등, 신경통, 대관	★
	양종운	월, 목	월, 목, 금	척추관협착, 허리근육손상, 척추관 협착, 척추수술 후 통증 등, 신경통, 대관	
	이정근	월, 금	화, 수, 목	척추관협착, 허리근육손상, 척추관 협착, 척추수술 후 통증 등, 신경통, 대관	
	이정근	월, 금	화, 수, 목	척추관협착, 허리근육손상, 척추관 협착, 척추수술 후 통증 등, 신경통, 대관	

토요일 선택진료 운영 안내

토요일에도 선택진료 의사가 외래환자를 진료합니다.
(* 표가 있는 진료과는 토요일 진료도 시행합니다.)

외래진료 절차 안내

- * 예약환자의 진찰료는 진료 후 수납하시면 됩니다.
- * 직접 방문한 환자의 당일 진료는 예약 상황에 따라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처음 오신 분은 진료신청서 작성 후 각 층 접수·수납 창구에 신분증,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과 초진환자는 진료신청 또는 수납 시 진료신청서와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가 필요합니다.
-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예약 시 (031-219-5451)

*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초진 시), 진찰권 번호(재진 시)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약 (www.ajoumc.or.kr)

* 아주대학교병원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진료예약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문클리닉 진료시간표

<암센터>

진료과명	의사명	오전	오후	세부진공	비고
위암 센터 4181	조용관			위암, 위장 및 복부질환	
	한상목	수, 금	월	위암, 복강 및 로봇수술	★
	허준	월, 화	수	상부위장관질환, 위암, 복강경	
	이기명	월, 수	금	위암, 위장 질환, 대장 질환	
	신성재	수	목	위암, 위장 질환, 대장 질환	
	강석윤	월, 수, 금	수	각종 고형암, 위암, 대장암, 폐암, 담도암	★
노오규	월, 수, 금	수	폐암, 소화기암, 간담도암		
임선교	목	월, 화	대장암, 대장·위장질환		
최진희	화, 수, 금		두경부암, 신도암, 폐암, 위암		
양희정	월, 금, 토(간이식 후 진료)	화		간이식, 간암, 간내결석, 담도	
	김봉인	해외연수중		간이식, 복강경간수술, 간암, 담도암	
박용근	화	월, 금	간이식, 복강경, 로봇간결핵, 담도암		
폐암 센터 4730	황성철	월, 화, 금	목	폐암, 폐결핵, 천식, 만성기침	
	박광주	화, 금	월, 수	폐암, 만성폐질환, 폐결핵, 중환자 치료학	
	신승수	월, 목	수, 목	폐암	
	박수현	화, 금	수, 목	호흡기질환, 간질성폐질환, 폐결핵	
	최준	화, 금	화	폐암, 중각동질환, 다관종	
	최진희	화, 수, 금		두경부암, 신도암, 폐암, 위암	
강석윤	월	목	각종 고형암, 위암, 대장암, 폐암, 담도암		
오영택	화, 금	월, 화	중 앙(두경부, 폐종양, 비노기암)		
대장 암 센터 5758	서광욱	월, 목	월, 목	대장·직장·항문 질환	
	오승업	월, 목	월, 목	대장·직장·양성항문질환, 로봇수술	
	김도윤	화, 금	월, 목	대장·직장·항문 질환, 급성복통	
	이광재	수	월, 금	대장암, 대장·위장질환, 기능성 질환	
	신성재	목	월, 화	위암, 위장 질환, 대장 질환	
	임선교	월	목	대장암, 대장·위장질환	
강석윤	월, 화, 목, 금*	월	각종 고형암, 위암, 대장암, 폐암, 담도암		
전미선	월, 화, 목, 금*	월	중 앙(두경부, 유방암, 피부소화기암, 소아암), *내시경		
노오규	월, 수, 금	수	소화기암, 폐암, 간담도암, 피부암	★	
정홍식	화, 수, 금	금*	유방질환 및 유방암 *		
김구상	월, 목	월, 수, 목*	유방질환 및 유방암 *		
홍우성	화, 금	화, 금	유방질환		
전미선	화	화, 금	유방종양		
강석윤	화, 목	화, 목	유방종양		
민병현	화, 금		무릎관절 연골재생	★	

1. 진료시간표는 각 과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는 특수진료입니다.
3. *는 세부진공만 진료합니다.
4. □은 추가비용정수 선택진료의사입니다.
5. ★는 진료시간이 변경된 의사입니다.
6. 전화문의는 031+219+해당 진료과의 번호를 누르십시오.

셔틀버스 운행 노선

병원 현관 → 아주대학교 정문(교문 서점) → 우리은행 → 우단신성아파트(미소지움) → 삼성생명빌딩(동수원사거리) → 동수원병원 맞은 편(구 조흥은행) → 인계신경아파트(이화약국) → 태탄1동 우체국(우리은행 맞은 편) → 신라갈비 → 병원 현관

평일 오전 8:30~오후 4:30(운행간격 : 30분)
평일 12:30분, 토요일·공휴일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진료과명	의사명	오전	오후	비고	
소화기 내과	간암클리닉 5976	조정원 월, 화, 목			
	정재연 금	화, 목			
점막학 종양클리닉 5976	왕희정 월, 금	화			
	김봉인 해외연수중				
	왕재환 월, 화, 목	금			
	김진홍 화, 목	수			
순환기 내과	이기명 월, 수	수			
	왕재환 목	월, 금			
	한상목 수, 금	월			
심부전 및 관상동맥 질환클리닉 5717	신준환		화		
	김영내과	최영화	수, 목	월, 목	★
암외과 내과	별동(근종독)알레르기클리닉 5902	박해심 화, 목	수	★	
암외과 내과	관절염클리닉 4310/5902	남동호 월, 목	화, 금	★	
암외과 내과	관절염클리닉 4310/5902	서창희 화, 목, 금	월	★	
소아 정신과	성장클리닉	황진수	목	화, 목, 목	
정신과 외과	공황장애클리닉 5814	이기명	금	★	
외과	대장항문병클리닉 5758	서광욱	월, 목		
	진료접수 Hot Line 5200	오승업	월, 목	화	
흉부외과	하지정맥류클리닉 5752	이광재	목, 금	목	
	홍벽기형클리닉 5752	임상현	수	월, 화	
신경외과	뇌졸중 재활내과 수술클리닉 5664	김선홍	수	화	
	임용철	화, 목			
신경외과 성형외과	두개안면골 기형 수술클리닉 5664	윤수한	화		
	정재호	수			
성형외과	구순구개열클리닉 5614	박명철	수		
	안면윤곽 미용클리닉	박동하	화	목, 금	
피부과 성형외과	피부종양클리닉 5614, 5917	김유찬	화	화	
	장우현	수		목	
신부인과	불임 및 습관성 유산클리닉 5597	황경주	화, 수	월, 화	
	김미란	월		화, 목	
안과	시력교정클리닉 5673	양홍석	목(예약)		
	의안클리닉 5673	국경훈	화	월, 목	
이비인 후과	난청클리닉 5742	정연준	화		
	박현이	수		목	
	어지럼증클리닉 5742	박현이		금	
	수면클리닉 5746	김현준		화	
비뇨기과	음성클리닉 5746	김철호	월		
	두경부클리닉 5746	김철호	수(2,4주)		
재활 의학과	요실금클리닉 5585	최충보	수, 금	월	
	아노증클리닉 5585	김영수	월	수, 금	
가정 의학과	사경치료클리닉 5802	임신영	화, 수, 금	목	
	박명철	월, 수, 금			
	아동재활클리닉 5802	임신영	화, 수, 금	목	
치과	오십견클리닉 5802	윤승현	월, 목	화, 수	
	비만클리닉 5959	김범택	월, 목	화	★
인공치아 클리닉 5869	주남석	해외연수중			
	이정근	수			
턱관절 장애클리닉 5869	송승일				
	허승룡	목		화	
	송승일				



JCI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AJOU
UNIVERSITY
HOSPITAL

World Class Hospital, World Class Safety

국제 의료기관 인증 병원

JCI 인증은... 아주대학교병원이 국제적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아주대학교병원은 2011년 6월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JCI,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JCI 인증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평가기관인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에서
전 세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엄격한 국제표준 의료서비스 심사를 거친
의료기관에게만 발급하는 인증제도입니다.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JCI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환자가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퇴원까지
치료의 전 과정에 걸쳐 총 1,222개 항목에 대한 세밀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주대학교병원은 환자 안전 및 의료서비스에서
세계적 표준을 충족하여 국내외 의료계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